

| 세미나 자료 |

2026년 하반기 AI 및 전력 산업 전망

운용2본부 김효식 팀장 / 양희창 매니저

2026. 08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나 본 자료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관련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추천 해외주식형 ETF



해외주식

종목코드 : 0015B0

KoAct 미국나스닥성장기업액티브 ETF

※ 합성총보수(연) 0.6424%(집합투자: 0.45%, AP: 0.01%, 일반사무: 0.02%, 신탁: 0.02%, 기타: 0.1424%),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1.3715% 발생 ※ 투자 위험 2등급(높은 위험)

종목코드 : 0093D0

KoAct 팔란티어밸류체인액티브 ETF

※ 총보수(연) 0.50%(집합투자: 0.45%, AP: 0.01%, 일반사무: 0.01%, 신탁: 0.0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추가 발생 가능 ※ 투자 위험 2등급(높은 위험)

종목코드 : 475070

KoAct 글로벌친환경전력인프라액티브 ETF

※ 합성총보수(연) 0.5917%(집합투자: 0.45%, AP: 0.01%, 일반사무: 0.02%, 신탁: 0.02%, 기타: 0.0917%),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2951% 발생 ※ 투자 위험 2등급(높은 위험)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ETF 거래수수료 및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원금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의 구성종목 및 비중은 향후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 국내주식형 ETF



종목코드 : 487130

KoAct AI인프라액티브 ETF

※ 합성총보수(연) 0.5628%(집합투자: 0.45%, AP: 0.01%, 일반사무: 0.02%, 신탁: 0.02%, 기타: 0.0628%),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1.2154% 발생 ※ 투자 위험 2등급(높은 위험)

종목코드 : 0219B0

KoAct 광통신&위성네트워크액티브 ETF

※ 총보수(연) 0.50%(집합투자: 0.45%, AP: 0.01%, 일반사무: 0.02%, 신탁: 0.02%),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추가 발생 가능 ※ 투자 위험 2등급(높은 위험)

종목코드 : 0150K0

KoAct 수소전력ESS인프라액티브 ETF

※ 총보수(연) 0.50%(집합투자: 0.45%, AP: 0.01%, 일반사무: 0.02%, 신탁: 0.02%),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추가 발생 가능 ※ 투자 위험 2등급(높은 위험)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ETF 거래수수료 및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원금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의 구성종목 및 비중은 향후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시 전망:

아직 AI 버블 붕괴가 발생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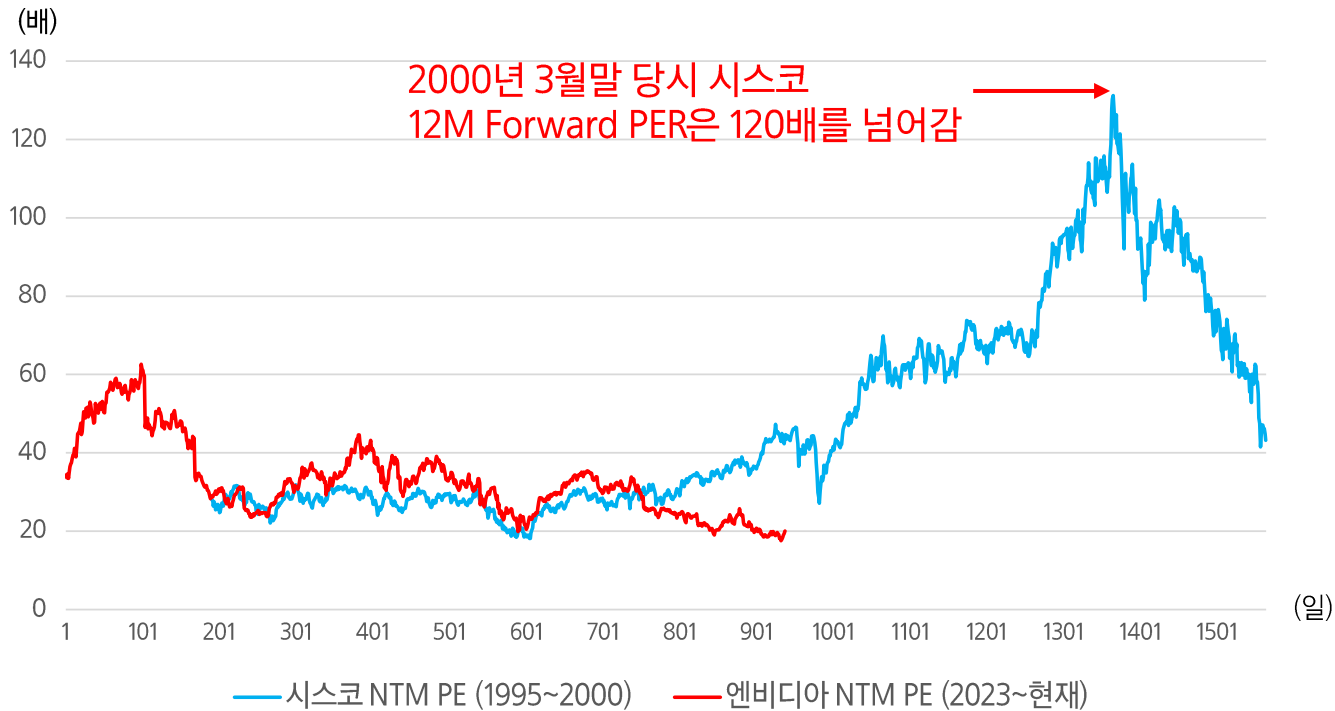
- 1) 밸류에이션: 아직 미국 테크 섹터 밸류에이션은 비싸지 않다고 판단
- 2) 실적 추정치: 아직 미국 테크 섹터 추정치 상향 구간이라고 판단
- 3) 금리: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위험 요인

※ 상기 내용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주관적인 정리 내용으로 향후 달라질 수 있음

AI 산업 주도주들의 밸류에이션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판단

- 닷컴 버블이 정점이었던 2000년에 시스코의 12M Forward PER은 120배를 뛰어넘었으며 오라클 122배, 마이크로소프트 68배 등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이 나타남 (FactSet/Bloomberg, 2000.12)
- 반면 엔비디아와 알파벳(구글)의 12M Forward PER은 '26년 8월 현재 20배, 21배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각 버블기 주도주 밸류에이션 비교 (12M Forward PER)



12M Forward PER
(2026.08.0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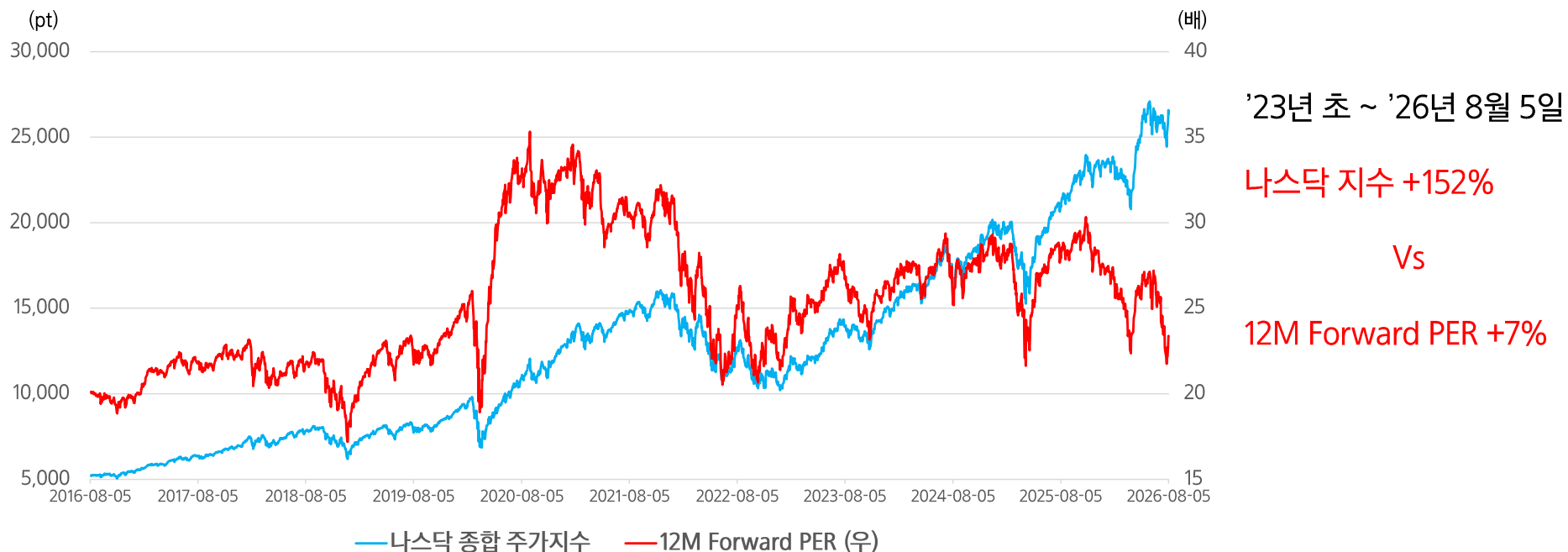
시스코	25
아마존	24
마이크로소프트	24
브로드컴	24
알파벳	21
엔비디아	20
메타	18
오라클	17
마이크론	6

자료 : FactSet, Bloomberg, 삼성액티브자산운용 (2026.08.05) * 닷컴 버블기: 1995.01.01~2000.12.31로 가정 * AI 버블기: 2023.01.01~현재(2026.08.05)로 가정 * x축은 닷컴 버블기 동안의 1,565 영업일을 의미
* 12M Forward PER이란 미래 12개월 예상 EPS를 기준으로 하는 PER 배수를 의미 * 상기 내용은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실적 및 전망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한 이익 성장세가 밸류에이션 매력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

- 나스닥 종합 주가지수는 2023년 초 10,466 포인트에서 2026년 8월 5일 26,363포인트까지 +152% 상승하였으나 12개월 Forward PER은 2023년 초 21.9배에서 2026년 8월 5일 23.4배로 +7% 상승에 불과 (FactSet/Bloomberg, 2026.08)
- 큰 폭의 주가 상승에 비해 밸류에이션이 크게 높아지지 않은 이유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

나스닥 종합 주가지수의 12M Forward PER 추이 (최근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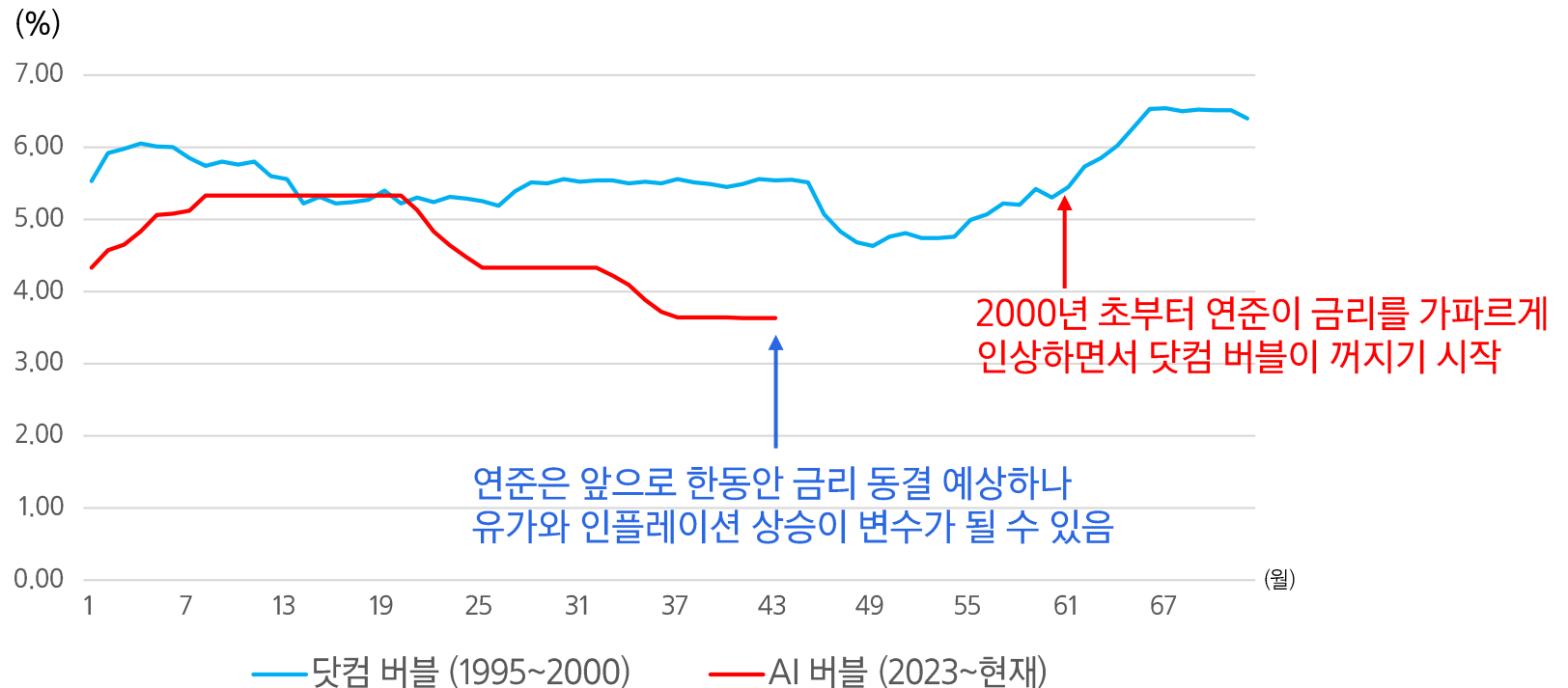
자료 : FactSet, Bloomberg, 삼성액티브자산운용 (2026.08.05)

* 12M Forward PER이란 미래 12개월 예상 EPS를 기준으로 하는 PER 배수를 의미 ※ 상기 내용은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실적 및 전망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기준금리 향방은 주의해야 할 부분

- 미국 정치권은 AI 산업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을 위한 AI액션플랜(2025.07) 등 다양한 재정정책 추진 중
- 다만 2026년 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

각 버블기 미국 연준 실효 금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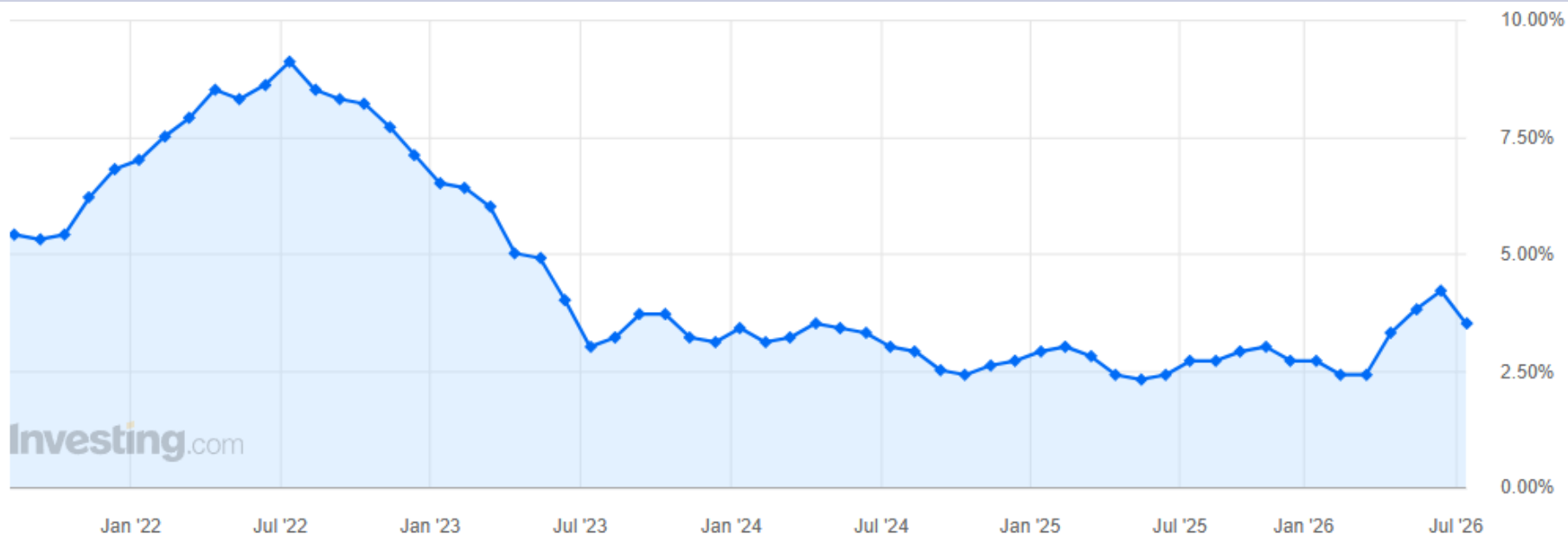


자료 : 미국 연준, 삼성엑티브자산운용 (2026.07) * 닷컴 버블기: 1995.01.01~2000.12.31로 가정 * AI 버블기: 2023.01.01~현재(2026.08.05)로 가정 * x축은 닷컴 버블기 동안의 72개월을 의미
※ 상기 내용은 자료 작성 시점의 전망으로 향후 이와 달라질 수 있음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및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2025년부터 지속된 미국 관세 전쟁 여파와 2026년 들어 시작된 이란전쟁 영향으로 최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퀘를 같이하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2026.08.05 기준 4.6%)**
- **그럼에도 낮은 밸류에이션과 강력한 실적 추정치 상향이 이어지며 미국 Tech 섹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의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미국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최근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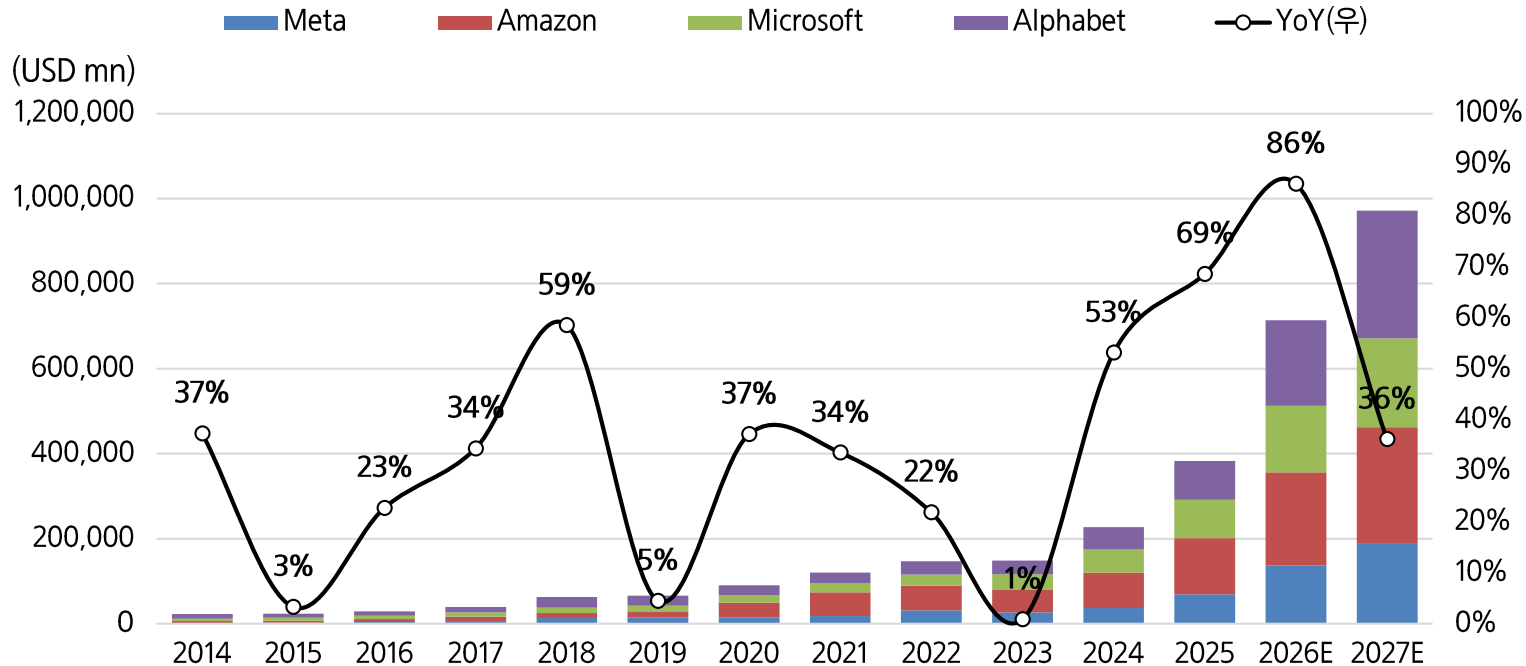
자료 : Investing.com (2026.07.14)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산업의 CAPEX 모멘텀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판단

- 2025년 1월 20일 중국 딥시크의 LLM(대형언어모델) R1이 공개된 이후 AI 산업 CAPEX에 대한 우려 발생
- 하지만 이후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2025년 클라우드 산업 CAPEX 증가율 추정치는 오히려 올라갔음
- '25년 초에 전망했던 '25년 CAPEX 증가율은 10~20%였으나 69%로 마감. '26년과 '27년 추정치 역시 추가적인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4개사의 합산 CAPEX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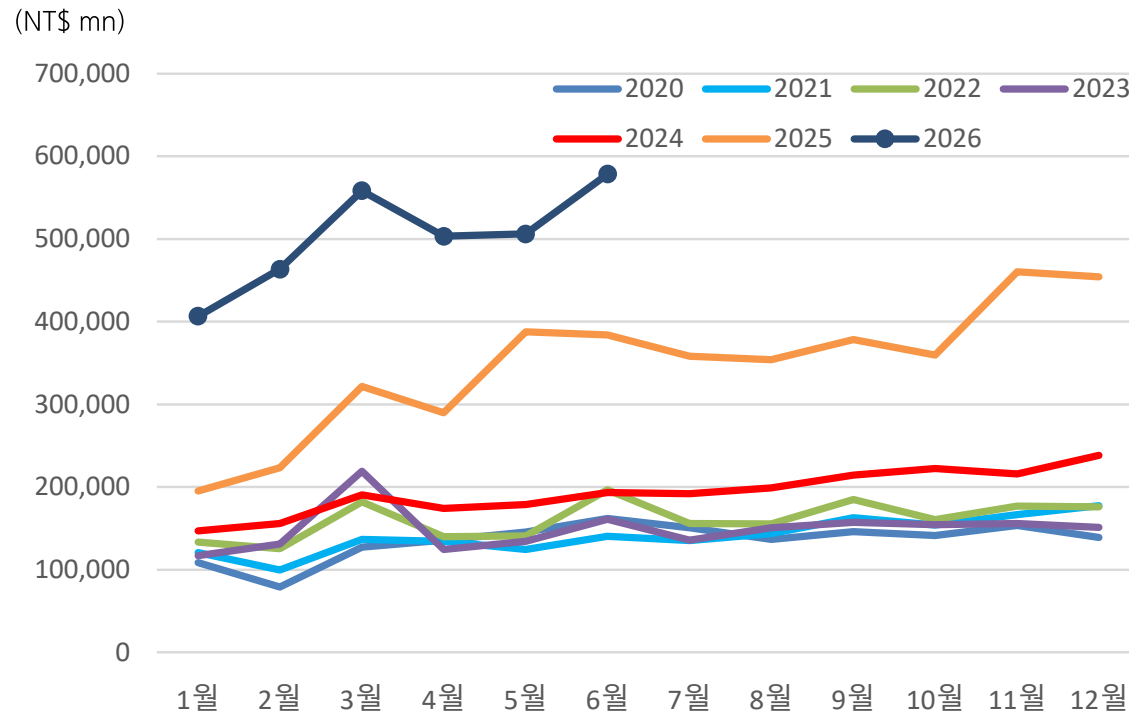
자료 : 각 사, FactSet Consensus, 삼성엑티브자산운용 (2026.08)
Note: 각 사 CAPEX 가이드스 및 시장 예상치 취합

※ 상기 내용은 자료 작성 시점의 전망으로 향후 이와 달라질 수 있음

대만 월별 매출 동향 (AI 서버)

- '25년 1분기 DeepSeek의 충격이 있었으나, **AI 하드웨어 시장의 전방 수요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대만 서버 ODM 업체들의 월매출 트렌드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

대만 서버/NB ODM 월별 매출 (2020년 1월 ~ 2026년 6월)



자료 : Gigabyte/Inventec/Wistron/Wiwynn 4개사 합산, 삼성엑티브자산운용 (202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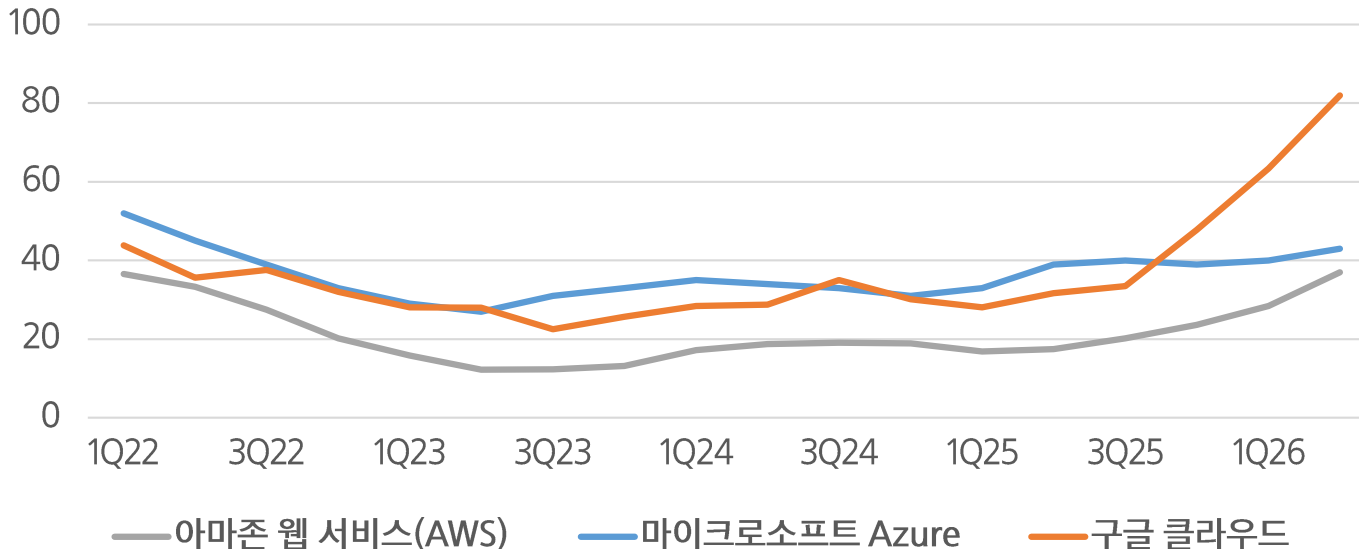
※ 상기 수치는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음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판단

- 기존 클라우드 빅 3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은 꾸준히 개선 중이라고 판단
- 클라우드 빅테크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향후 클라우드 매출 확대의 관건은 어떤 업체가 더 빨리 데이터센터 증설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판단

미국 클라우드 빅3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추이 ('22년 1분기 ~ '26년 2분기)

(전년대비 %)



3사 공통적으로
매출액 성장률 상승과
함께 영업이익률 개선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AI 산업:

AI 모델 학습을 넘어 추론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기라는 판단

초창기 GPU에서 먼저 시작됐던 실적 개선은
AI 서비스, CPU, 광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 상기 내용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주관적인 정리 내용으로 향후 달라질 수 있음

KoAct 미국나스닥성장기업 액티브 ETF

혁신 산업의 기술 및 주도 기업 변화에 빠르게 투자하는 ETF

01 기술 트렌드 및 주도 기업 변화에 맞춰 **액티브 운용**

• Nvidia → Tesla → SanDisk → ? 로 이어지는 나스닥 주도 기업 및 주도 트렌드 변화에 투자

02 **Rising Star 발굴**을 통해 Next 나스닥 100 편입 후보 투자

• 나스닥 100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금융주 제외)로 혁신 산업 내 Rising Star기업 편입이 어렵다고 판단

03 **액티브 운용 전문 운용사,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KoAct 미국나스닥성장기업 액티브 ETF, 상장 이후 기초지수(나스닥 종합) 대비 +65.9%p 초과 성과

※ 기간별 수익률: 상장 이후(ETF +95.6% vs BM +29.7%) / 1년(ETF +58.3% vs BM +22.1%) / 6개월(ETF +14.7% vs BM +4.9%)

(2026.07.31 기준, 순자산 규모: 5,913억원, 2025.02.21 설정, 2025.02.25 상장,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상기 수익률은 NAV 기준 세전 수익률로,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구조적 성장', '산업 리딩 기업'에 집중 투자

KoAct 미국 나스닥 성장기업 액티브 포트폴리오 Top 20

	종목	비중(%)	투자포인트
1	Palantir	8.47	엔터프라이즈 AI 리더
2	Microsoft	5.56	클라우드 인프라 리더
3	Snowflake	5.44	AI 데이터 리더
4	Amazon	5.08	클라우드 인프라 리더
5	Nvidia	4.93	AI 반도체 리더
6	Applied Optoelectronics	3.68	AI 네트워크 리더
7	Advanced Micro Devices	3.23	AI CPU 리더
8	MongoDB	3.06	AI 데이터 리더
9	ARM Holdings	3.05	AI CPU 리더
10	Alphabet	3.00	클라우드 인프라 리더
11	Coreweave	2.70	클라우드 인프라 리더
12	Cloudflare	2.63	사이버 보안 리더
13	ServiceNow	2.57	IT 업무 관리 플랫폼 리더
14	Netapp	2.48	스토리지 관리SW 리더
15	Bloom Energy	2.48	SOFC 연료전지 리더
16	Astera Labs	2.34	AI 네트워크 리더
17	Lumentum	2.32	AI 네트워크 리더
18	Alibaba Group	2.23	클라우드 인프라 리더
19	Nebius	2.10	클라우드 인프라 리더
20	Dynatrace	1.96	AI 모니터링SW 리더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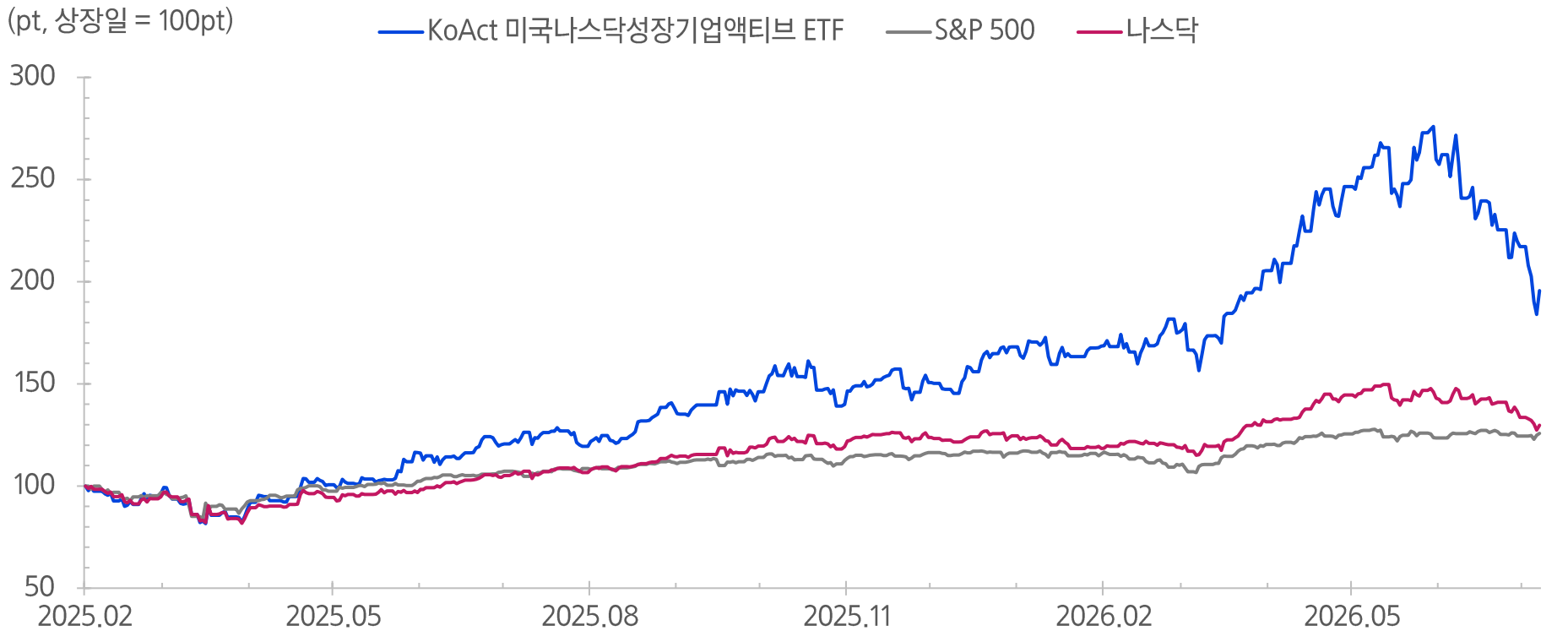
NASDAQ 지수(3200개 종목)

	종목	비중(%)
1	Nvidia	11.5
2	Apple	9.9
3	Microsoft	7.9
4	Amazon	6.4
5	Alphabet	4.6
6	Broadcom	4.3
7	Alphabet	4.3
8	Meta Platforms	2.8
9	Tesla	2.6
10	Micron	2.2
11	Walmart	1.9
12	Space X	1.7
13	Adv Micro Devices	1.7
14	Intel	1.1
15	Cisco	1.0
16	Applied Materials	0.9
17	Costco	0.9
18	Lam Research	0.8
19	Palantir	0.8
20	Netflix	0.7

자료 : Factset, 삼성액티브자산운용, 2026년 8월 11일(전체 종목 44개) PDF 기준
 ※ 구성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KoAct 미국나스닥성장기업액티브 ETF 수익률 현황 (상장 이후 나스닥 대비 +65.9%p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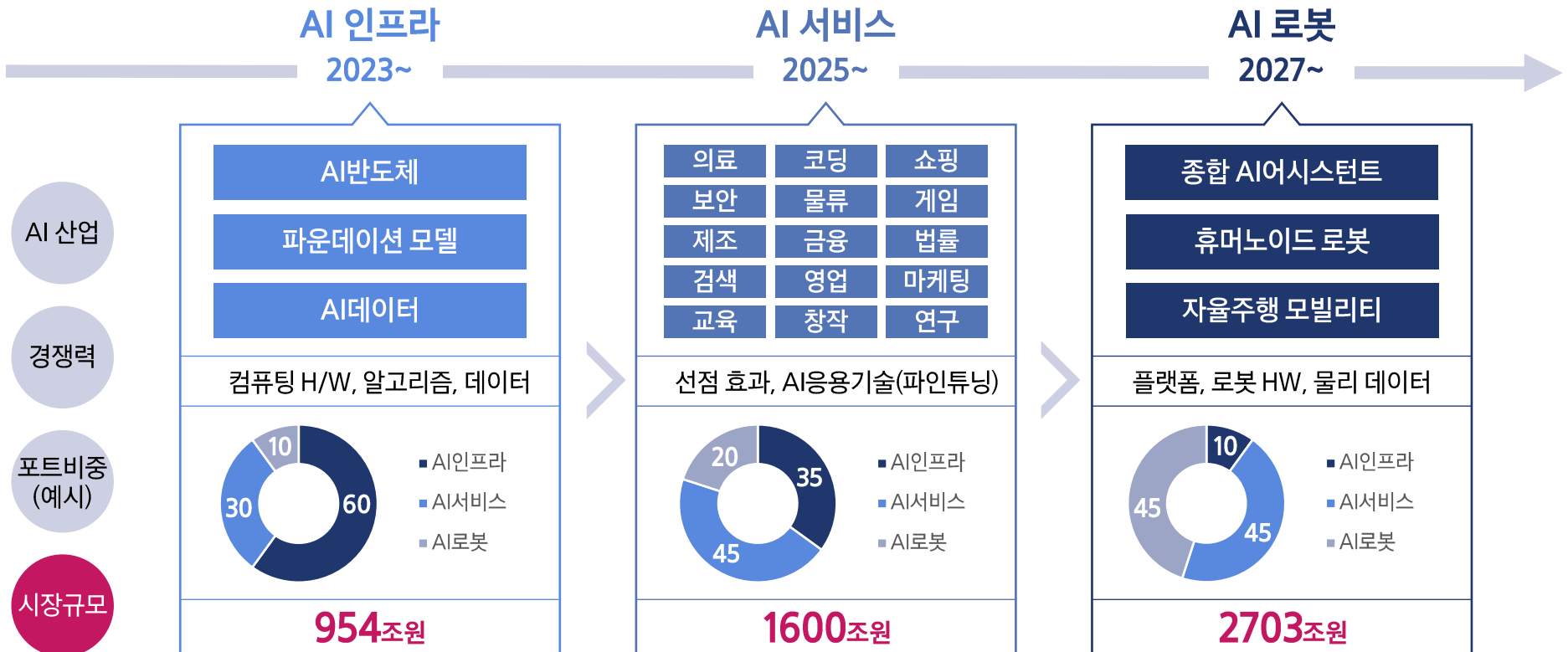
구분	3개월	6개월	1년	상장 이후
KoAct 미국나스닥성장기업액티브 ETF	-6.4%	+14.7%	+58.3%	+95.6%
S&P 500	+3.9%	+7.9%	+18.1%	+25.8%
나스닥종합지수(BM)	-2.3%	+4.9%	+22.1%	+29.7%



※ 2026.07.31 기준, 순자산 규모: 5,913억원, 2025.02.21 설정, 2025.02.25 상장,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상기 수익률은 NAV 기준 세전 수익률로,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차트는 상장일 기준가를 100pt로 지수화하여 계산 BM: 나스닥종합지수(KRW)

운용 전략 AI산업의 발전 단계

- AI 시장은 **AI 인프라** 구축 단계를 넘어 2025년 **AI 서비스** 시장 개화, 2027년 **AI 로봇** 등장과 함께 큰 폭으로 성장 전망
- 연초 AI Agent 등장 이후 AI 인프라 수요 상향 조정 및 AI 서비스 시장 개화 본격화되는 중이라고 판단



자료 : 삼성엑티브자산운용, Precedence Research(2025년 9월)

※ Note : 시장규모 기준연도는 상기 자료에 따라 AI인프라 2024년, AI서비스 2027년, AI로봇 2030년; 원/달러 환율 1495.0원 적용(26년 3월 24일 기준)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산업과의 비교

- 과거에 인터넷 산업도 발전 단계별(통신 인프라 → 인터넷 서비스)로 주도 기업이 변화하였다고 판단

통신 인프라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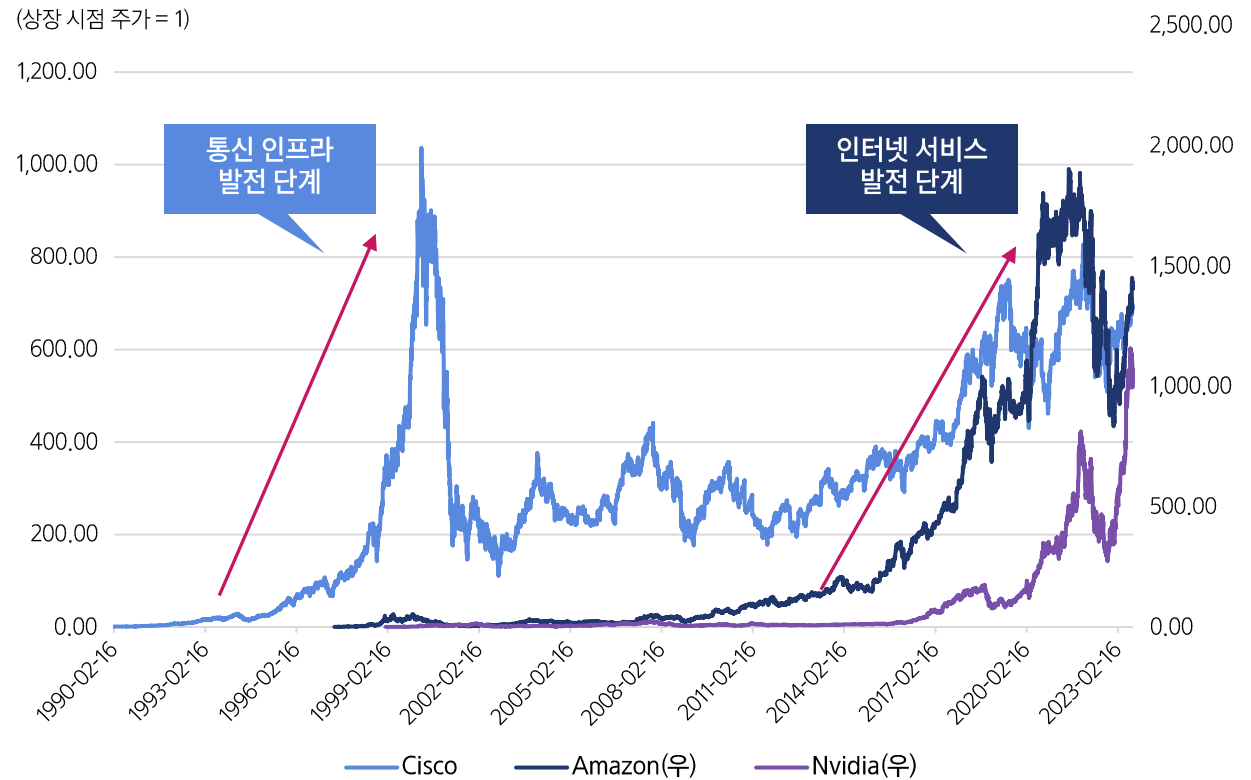
AI 산업	데이터센터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력	컴퓨팅 H/W
기업	Intel, Cisco

인터넷 서비스 (2000~)

AI 산업	SNS	OTT	쇼핑
	검색	뉴스	게임
	예약	금융	공공
	보안	지도	마케팅
	교육	음악	연구
경쟁력	선점 효과, S/W 기술		
기업	Facebook, Google, Amazon		

※ 자료 : Factset(2025년 12월 22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통신 인프라 및 인터넷 서비스 기업 주가 추이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 AI 인프라: AI Agent의 등장

- AI Agent는 단순 텍스트 생성을 넘어 실제 업무 **계획, 실행, 평가까지 수행하며 업무 효율성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판단**
- 또한, AI Agent의 **Multi-Agent 구조**는 여러 Agent로 업무를 분업하여 단일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
- 하나의 AI Agent는 컨텍스트 메모리의 한계로 성능이 떨어지지만 작업을 기획, 실행, 평가, 총괄 등으로 나누면 성능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며 훨씬 컨텍스트 메모리의 확대로 업무의 연속성이 개선된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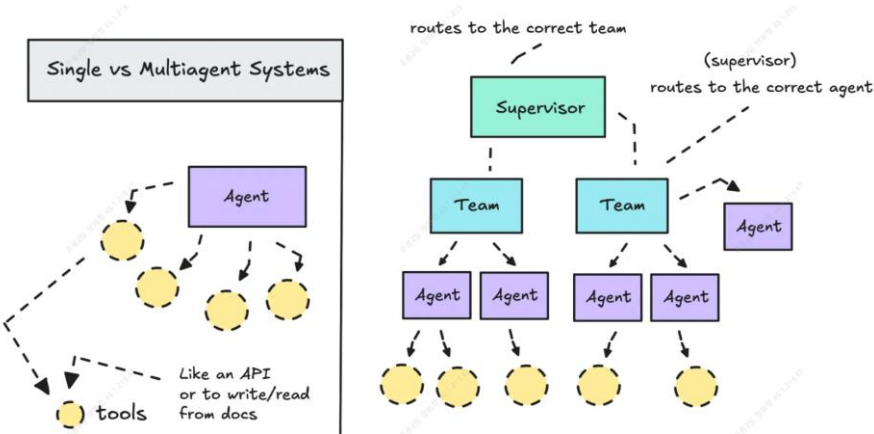
AI Agent의 특징

표 2. AI APP와 AI Agent 특징 비교

구분	기존 AI APP	AI Agent
핵심 역할	정보 제공 및 대화 (지식 전달·생성)	목표 수행 및 행동 (<u>자율적 업무 대행</u>)
상호작용 방식	단발성 Q&A (질문 → 답변)	목표 지향형 루프 (<u>Goal → 계획 → 실행 → 평가</u>)
운용 방식	사용자 단계별 프롬프트 입력 필요	<u>한 번의 명령으로 다단계(Multi-step) 자율 실행</u>
시스템 접근	챗봇 창 내 텍스트·이미지 생성 중심	비전 기반 UI 조작 (브라우저·앱·OS 제어)
컴퓨팅 구조	요청 시 일시적 연산 자원 사용	업무 완료까지 클라우드 상시 실행
LLM 활용 방식	언어 생성 및 이해 (Language Model)	추론 및 도구 사용 (Reasoning & Tool-Use)
수익 구조	구독/ 광고/ 일반 Token 사용	API 호출 증가 → 고단가 모델 매출 확대
비용 효율성	사용자 직접 검수 및 수정 필요	반복 업무 자동화 → 인건비 절감 (디지털 직원)
데이터 처리	플랫폼 서버 중심 저장	클라우드/ 로컬 환경 중심 실행
주요 활용 사례	번역, 요약, 검색, 콘텐츠 생성	리서치 자동화, 예약, 커머스·투자 운영 등
빅테크 포지션	모델 및 서비스 제공자 (Application)	인프라 및 게이트웨이 (Cloud & API Hub)

자료 : 미래에셋증권(2026.03.18)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Multi-Agent 워크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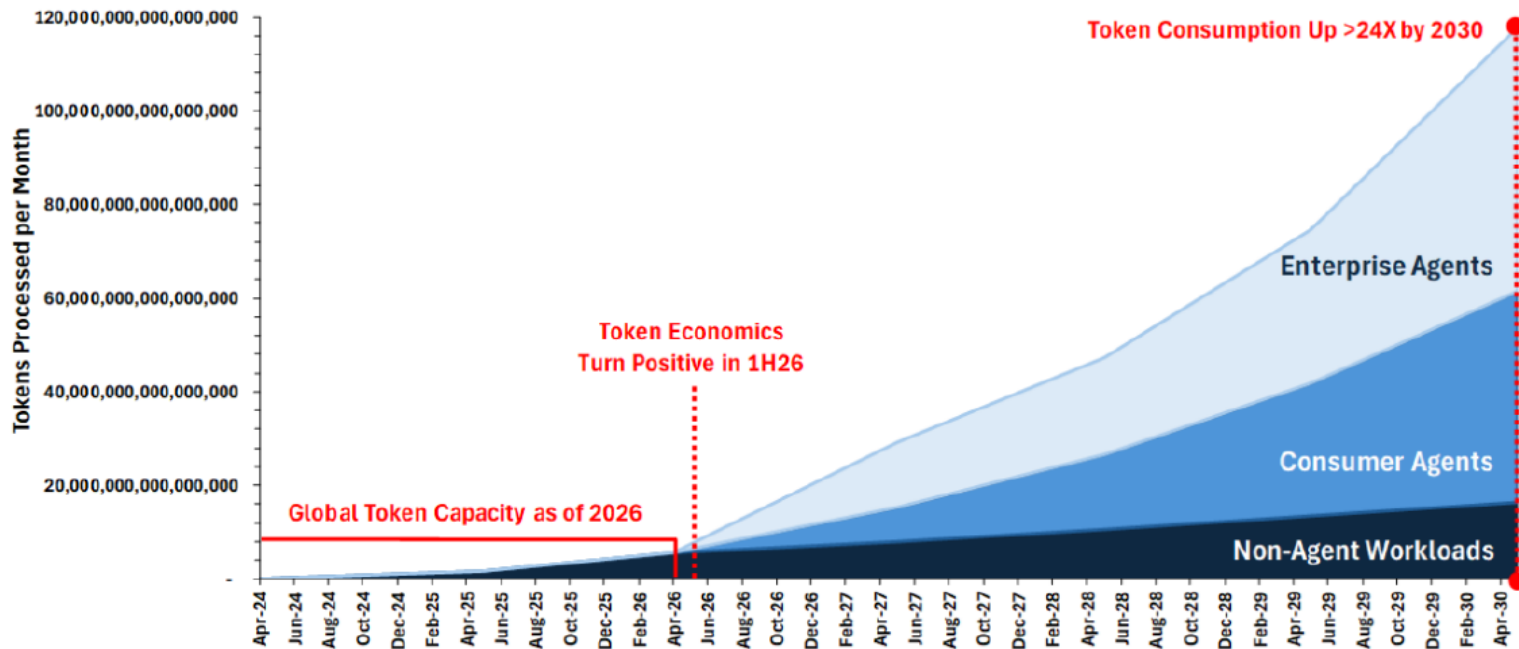
자료 : 자료 : Medium(2025.10.29)

AI 추론 수요 크게 증가 전망 - Agentic AI의 부상

- 골드만삭스는 '26년 5월 보고서에서 향후 2030년까지 Agentic AI 시장의 성장이 글로벌 토큰 소비량을 현재 대비 24배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
- Agentic AI란 자율적으로 복잡한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최소한의 인간 감독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

향후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Agentic AI 시장

By 2030, consumer and enterprise agents could push token consumption 24X above today's estimated global capa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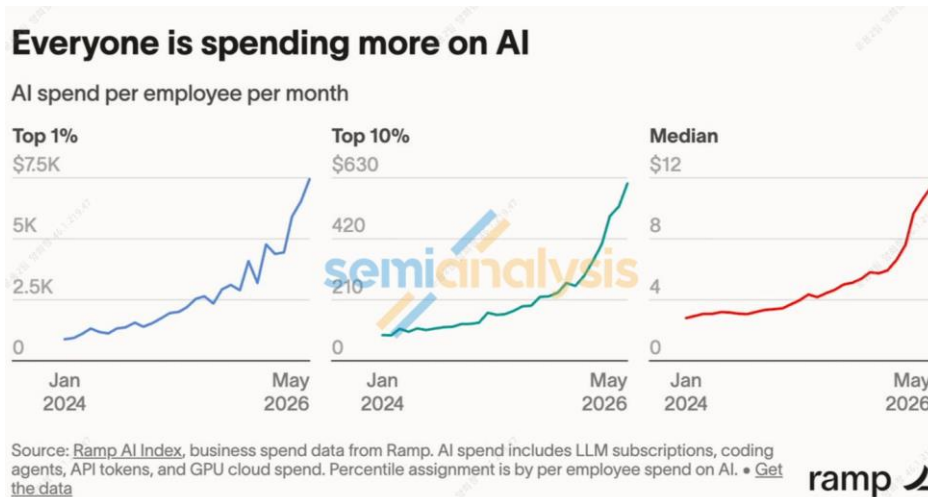
자료 : 골드만삭스(2026.05.08),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 AI 인프라: Token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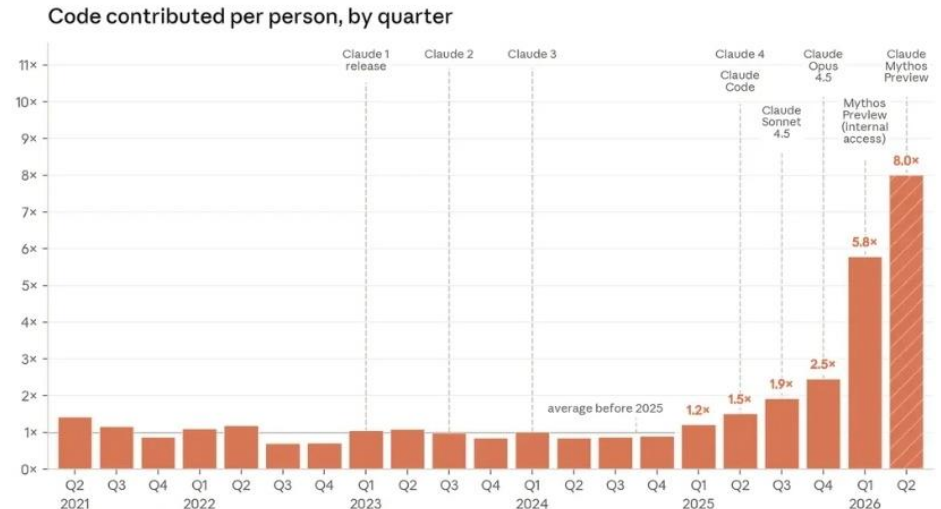
- Uber 등 일부 기업의 토큰 사용량 제한에도 불구하고 AI로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는 회사일수록, AI를 더 잘 쓰는 회사일수록 **토큰 사용량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
- 앤스로픽 직원당 코드 생산량은 AI의 발전으로 8배 증가하며 신규 서비스 출시 속도 가속화 전망

AI 사용량이 높은 직원의 사용량 증가세가 더 가파름



자료 : Ramp, SemiAnalysis(2026.07.01)

Anthropic 직원당 코드 생산량 추이(AI로 8배 증가)



자료 : Anthropic(2026.06.08)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 AI 인프라: Agentic AI로 인한 추론 수요 폭발

- 현재 AI Agent 서비스는 Anthropic Claude Code, OpenAI Codex, Google Gemini Antigravity, OpenClaw 등이 경쟁
- 26년 5월 6일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추론 수요가 올해 10배 증가할 것에 대비해 컴퓨팅 용량을 준비했으나 실제로 **80배 증가가 예상된다**”고 언급
- 26년 7월 30일 OpenAI CFO는 **7월 ARRI가 2분기 전체 ARR을 뛰어넘었다**고 언급

앤스로픽, 오픈AI ARR(연환산 매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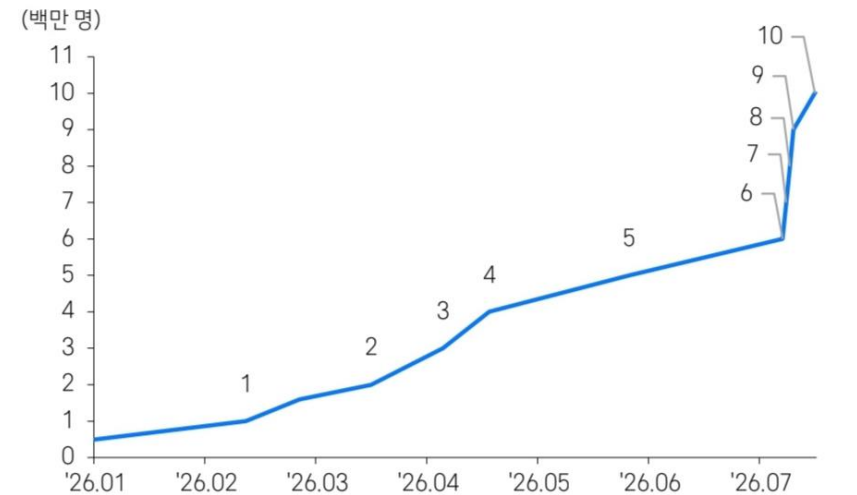


자료 : 삼성증권(2026.07.21)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OpenAI GPT-5.6, Work 출시 후 AI Agent 유저 수 급증

오픈AI의 Codex + 챗GPT Work WAU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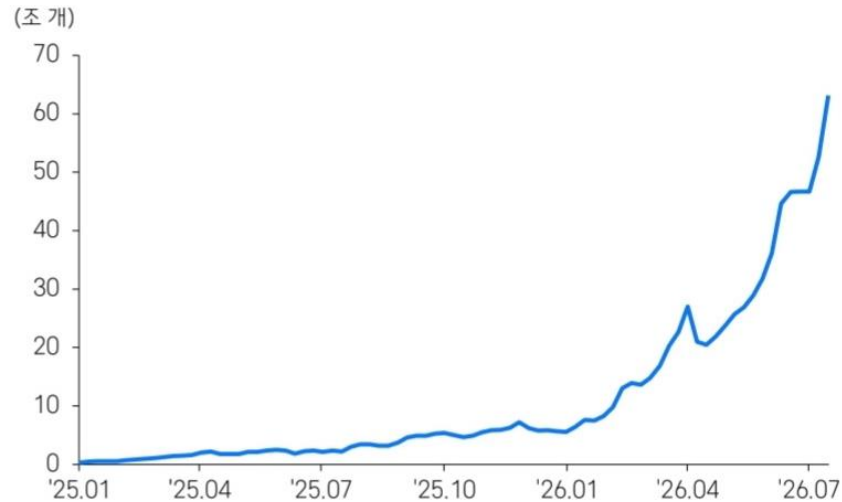
자료 : OpenAI, 삼성증권(2026.07.27)

운용 전략 AI 인프라: Agentic AI로 인한 추론 수요 폭발

- 26년초 AI Agent의 등장으로 AI서비스 시장은 소비자향 서비스 중심에서 **엔터프라이즈향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AI산업의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시작됨. 기존 SW 시장 잠식 전망

AI Agent 등장 이후 토큰 처리량 가속화 지속

오픈라우터 주간 토큰 처리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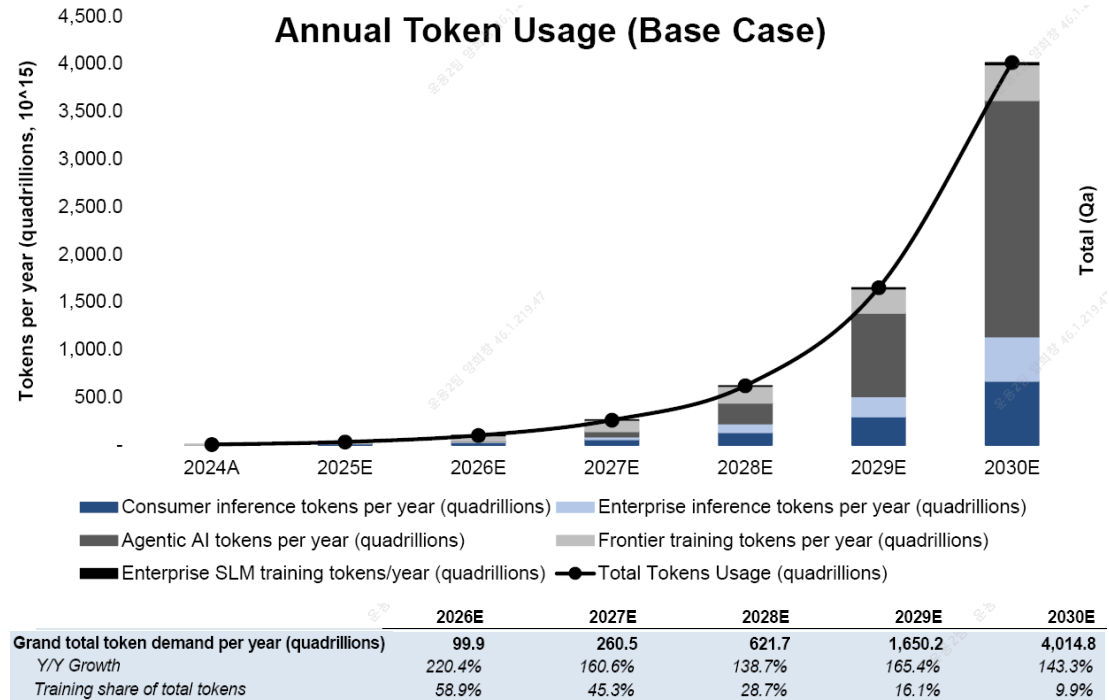


자료: OpenRouter, 삼성증권

자료 : OpenRouter, 삼성증권(2026.05.27)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토큰 처리량 40배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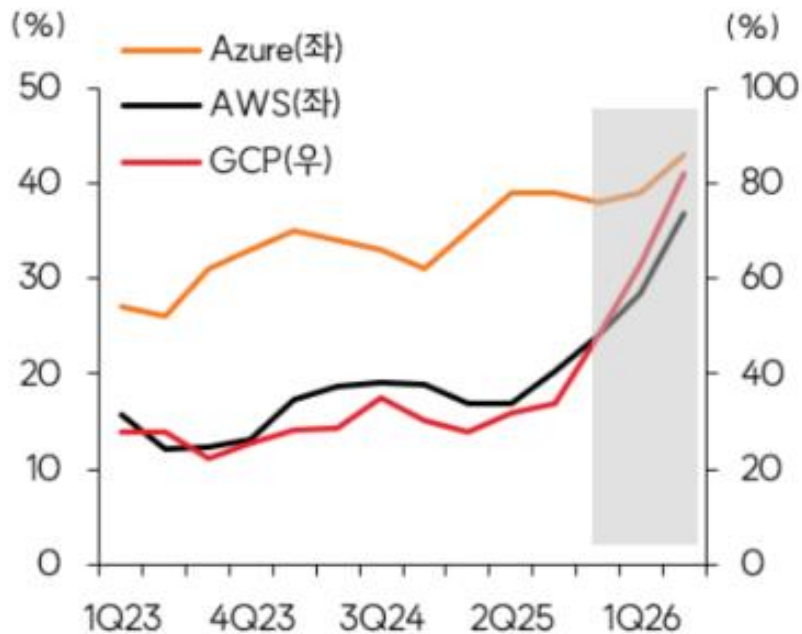


자료 : Goldman Sachs(2026.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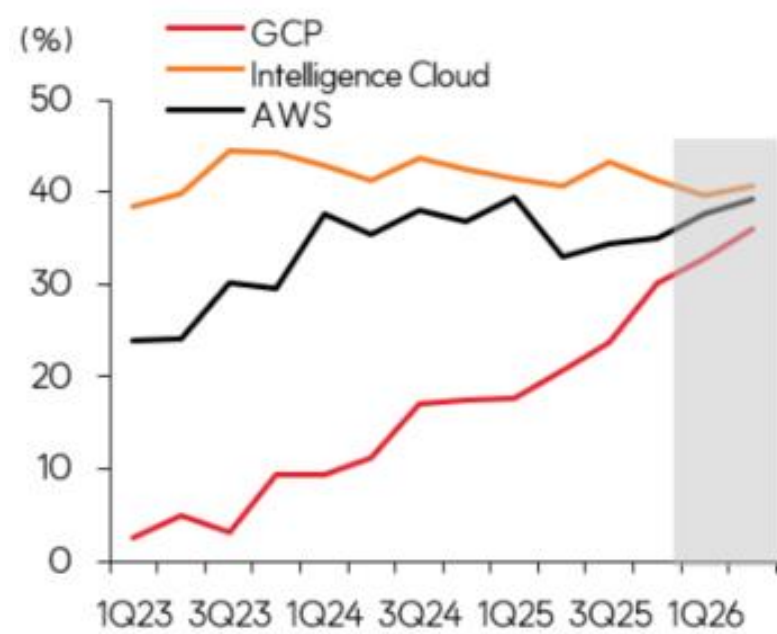
운용 전략 AI 인프라: 2Q26 클라우드 3사 실적발표

- 26년 7월 31일 Amazon은 **28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장기적으로 매출증가율이 Capex 증가율을 넘어서면서 매출, Free Cash Flow, ROIC 모두 크게 증가 전망
- 2Q26 실적 발표에서 Alphabet, Meta, Amazon 모두 **Capex 전망치 상향 조정**하며 AI 투자 확대를 언급
- 3사 클라우드 부문 모두 **영업이익률 40%** 수준으로 ROI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

CSP 3사 클라우드 부문 YoY 매출액 성장률 추이



CSP 3사 클라우드 부문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Bloomberg, 각 사 2Q26 사업보고서, SK증권(2026.07.31)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 AI 인프라: 2Q26 클라우드 3사 실적발표

- 26년 7월 31일 Amazon은 **현재의 Capex는 이미 확인된 수요를 매출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로 수요 가시성을 확보 후 Capex를 집행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서버 **투자금은 평균 3년 내로 회수**되고 BEP 이후 유의미한 FCF가 창출된다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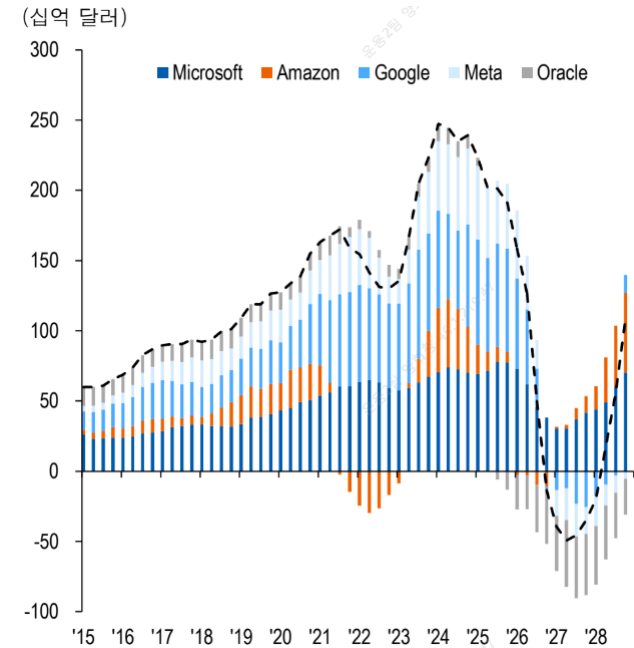
CSP 3사 클라우드 부문 YoY 매출액 성장률 추이



아마존 실적: 대규모 투자로 인한 적자는 훗날 거대한 성공으로 돌아왔다 (자료: 아마존, KB증권)

자료 : Amazon, KB증권(2026.07.27)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Big 5 하이퍼스케일러 Free Cash Flow(잉여현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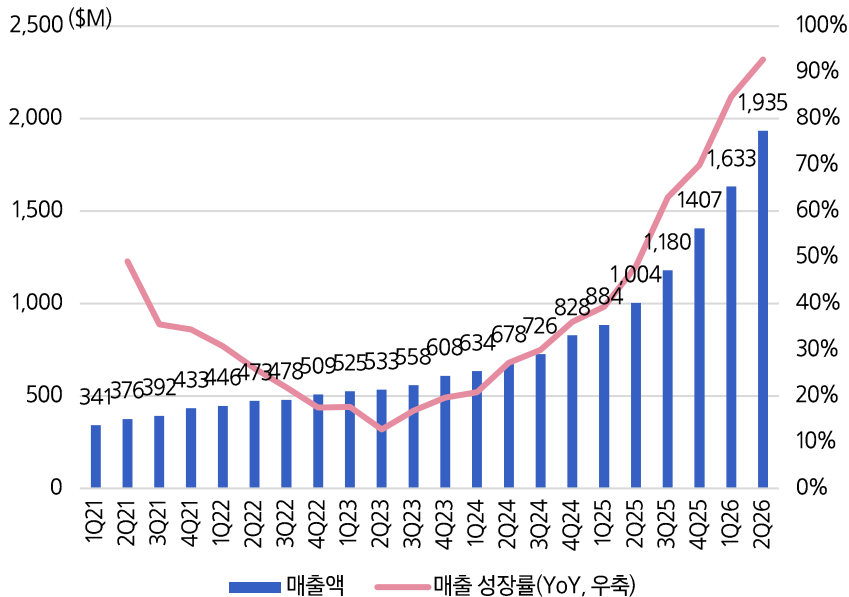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유안타증권(2026.07.29)
Note : 26년 2Q 이후는 예상치

운용 전략 AI 서비스: 2Q26 Palantir 실적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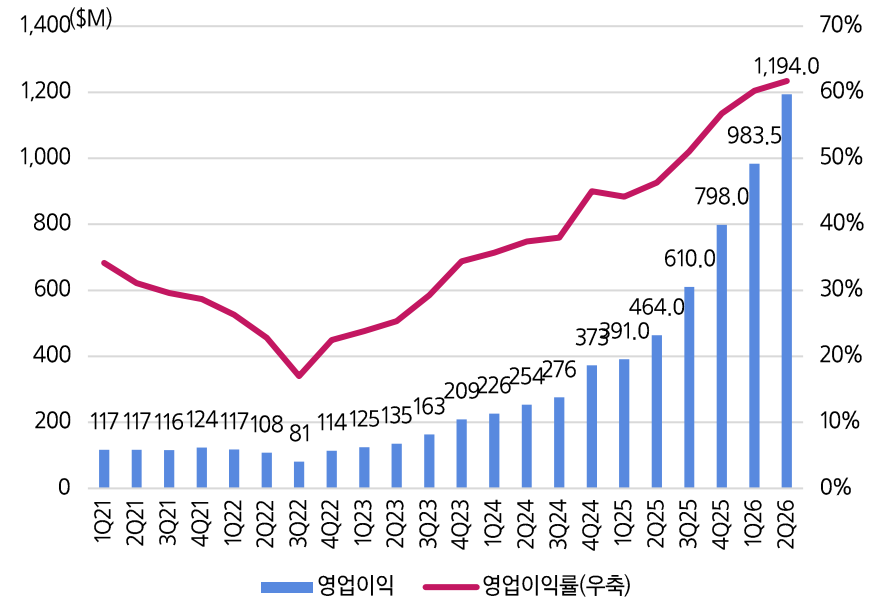
- 2026년 8월 3일 장 마감 후(현지 시간) **Palantir**는 정부 및 민간 기업의 AI기술 도입 가속화에 힘입어 호실적 기록
- Palantir 매출 성장률은 YoY 92.8%, QoQ 18.6%(vs 지난 분기 YoY 84.7%, QoQ 16%)로 가속화되었다고 판단
- 특정 LLM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제공해 기업의 **데이터 주권, 보안, 인프라SW를 모두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판단

Palantir 매출액 추이



자료 : Factset(2026.08.04)

Palantir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 Factset(2026.08.04)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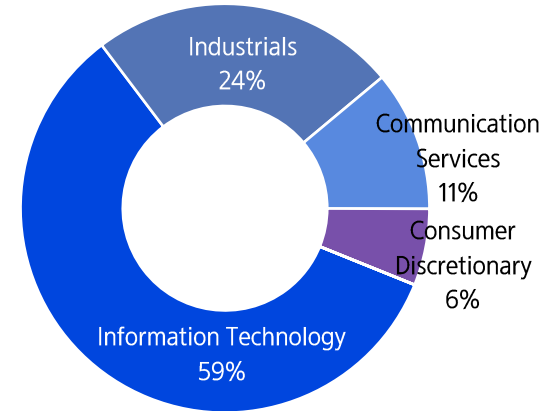
KoAct 팔란티어 밸류체인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

2025년 8월 26일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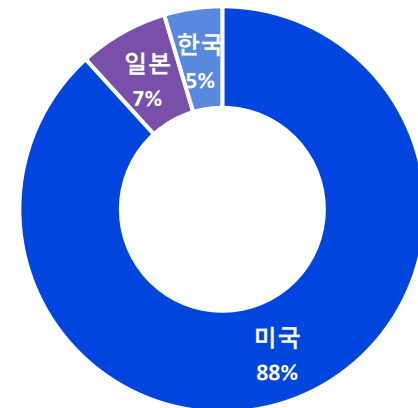
• 구성 종목 (Top 25)

	Company Name	비중	티커
1	Palantir	22.5%	PLTR-US
2	Snowflake	6.8%	SNOW-US
3	Microsoft	5.2%	MSFT-US
4	Amazon	5.0%	AMZN-US
5	MongoDB	3.0%	MDB-US
6	Dell Technologies	2.9%	DELL-US
7	Fortinet	2.7%	FTNT-US
8	Astera Labs	2.7%	ALAB-US
9	Marvell Technology	2.7%	MRVL-US
10	ServiceNow	2.6%	NOW-US
11	Netapp	2.5%	NTAP-US
12	Fujikura	2.4%	5803-JP
13	Datadog	2.4%	DDOG-US
14	Lumentum.	2.3%	LITE-US
15	Coherent	2.3%	COHR-US
16	Samsung Electronics	2.3%	005930-KR
17	Advanced Micro Devices	2.3%	AMD-US
18	Bloom Energy	2.2%	BE-US
19	Intel	2.1%	INTC-US
20	Cloudflare	1.6%	NET-US
21	ARM Holdings	1.5%	ARM-US
22	Kioxia Holdings	1.5%	285A-JP
23	LIG Nex1	1.3%	079550-KR
24	Furukawa Electric	1.2%	5801-JP
25	Kratos Defense & Security	1.1%	KTOS-US

• 산업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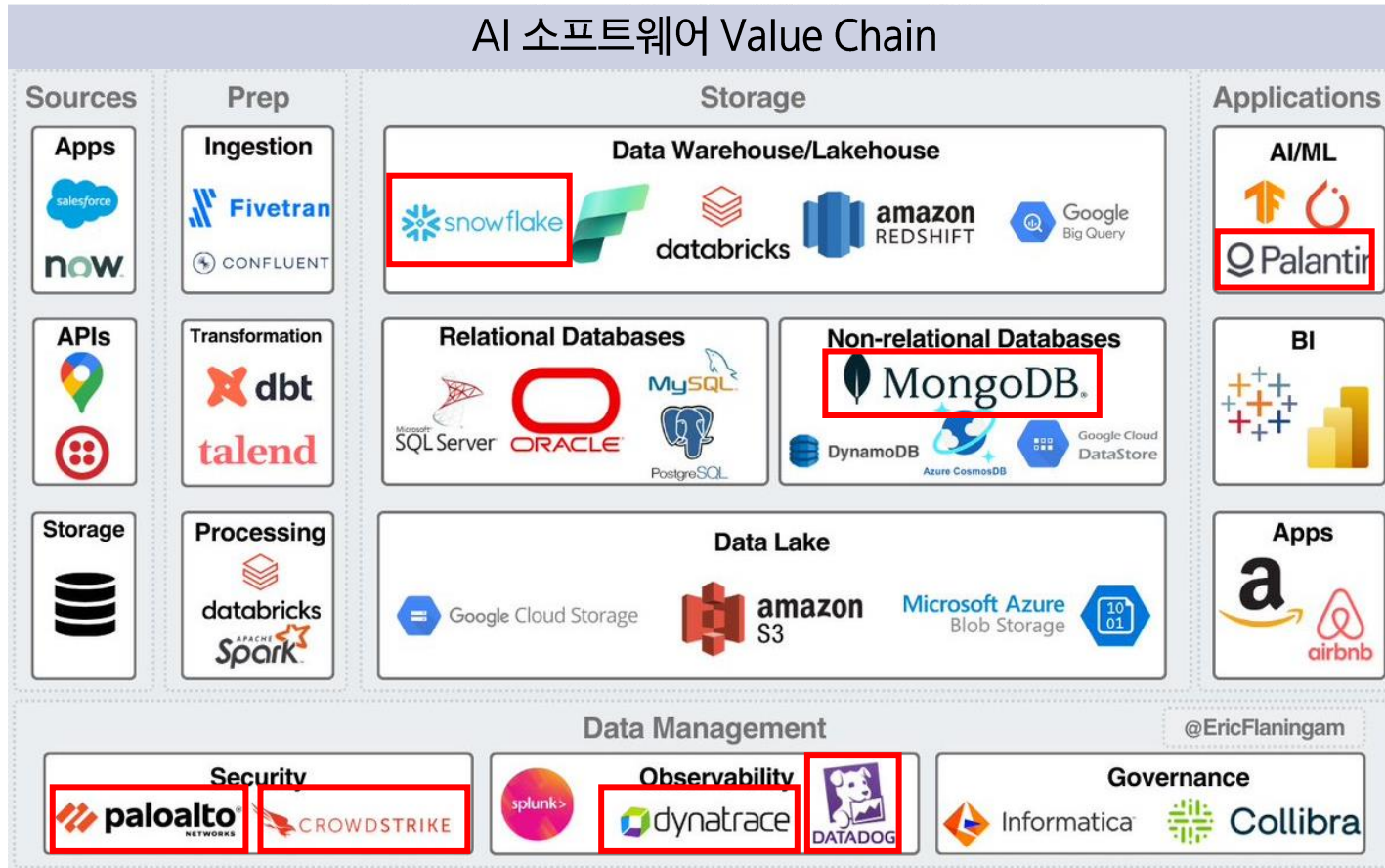
• 국가별 비중



자료 : Factset,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2026년 8월 7일(전체 종목 37개) PDF 기준 ※ 구성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 AI 서비스: Infrastructure Software

- 기업의 AI전환에서 좋은 LLM 모델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가공 및 구조화,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IT자원/앱 성능 모니터링, 사이버 보안, 개발 협업 툴 등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Infrastructure Software**가 필수



자료 : Generative Value(24.09.08), 삼성엑티브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 AI 서비스: Infrastructure Software

- AI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인프라 SW 수요 증가 전망

Infrastructure Software 주요 기업 추천(Morgan Stanley)

primary expected beneficiary

emerging / contested

mixed / watch

at risk

Category / driver	Bellwethers (illustrative)	Today	Mid-term	Later	Sequencing – what to watch
Analytical data infrastructure <i>Data modernization & AI-readiness</i>	SNOW (Pref OW)				Earliest beneficiary – data modernization / AI-readiness initiatives.
Observability <i>App & agent monitoring</i>	DDOG (Pref OW) DT				Benefits as AI apps and agentic initiatives hit production scale.
Transactional databases <i>OLTP for agentic apps</i>	MDB (Debated OW) ORCL NTNX				Follows closely as production workloads scale; MDB nearer-term than ORCL .
Compute / inference / agent infra <i>Edge & inference platforms</i>	NET (Pref OW) AKAM (Debated OW)				Follows closely – compute, inference and agent-infrastructure demand; NET higher conviction.
Software development automation <i>Dev tooling / DevOps</i>	TEAM (debated OW) GTLB				Usage is already strong; monetization depends on a transition away from pure seat-based pricing.

How to 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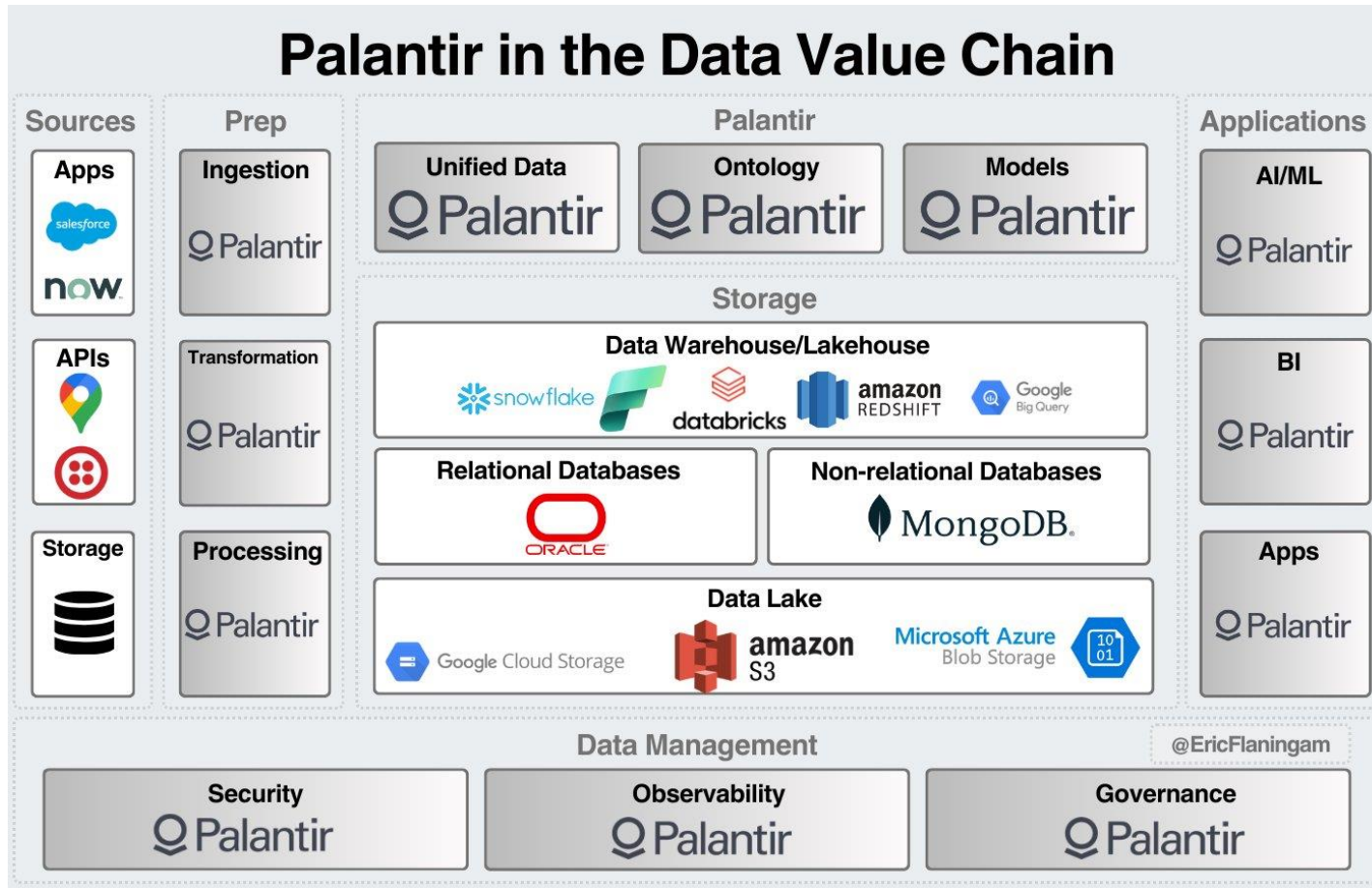
Own preferred beneficiaries SNOW, DDOG and NET now. MDB and AKAM are debated OWs positioned to benefit as production workloads scale; dev-automation remains later-cycle and pricing-transition dependent.

자료 : Morgan Stanley(26.07.21)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 AI 서비스: Infrastructure Software

- Palantir는 주요 기능들을 내재화한 AI운용 플랫폼 AIP를 제공



자료 : Generative Value(24.09.08), 삼성엑티브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 AI 서비스: Infrastructure Software

- 데이터를 정의하고 구조화한 Ontology와 AI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AIP 플랫폼이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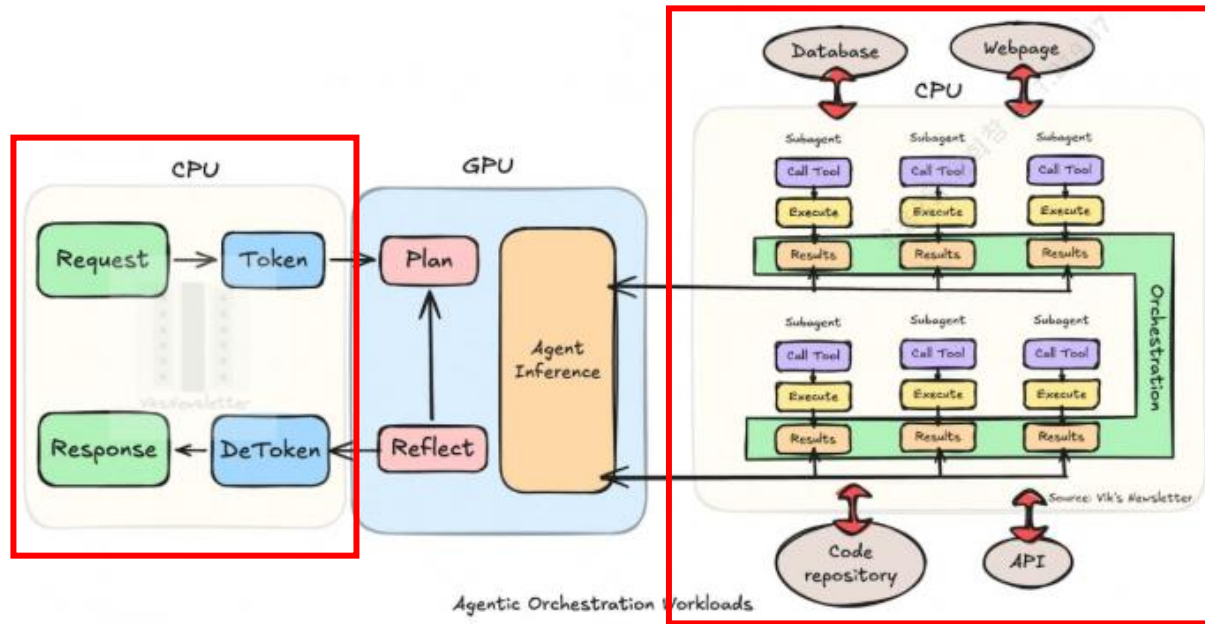
자료 : 삼성엑티브자산운용(26.08.11), 상기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 AI 인프라: AI CPU 병목 발생

- AI Agent 워크플로우에서 GPU는 병렬 연산이 필요한 AI추론 영역을 담당하지만 그외 **AI Agent간 업무 분배, 실제 코드 실행, API 호출, 툴 활용, 데이터베이스 접근, 인터넷 검색 등의 업무**는 모두 순차 논리 제어에 강점을 보유한 **CPU의 영역이라 판단**

AI Agent의 워크플로우에서 CPU와 GPU 역할 분담



AI에이전트를 작동할 때 GPU와 CPU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개념도. AI 챗봇에서 질문을 할경우 그림 왼쪽의 CPU만 활용하게 되지만, AI에이전트로 넘어갈 경우 CPU 활용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자료=빅스뉴스레터

자료 : 빅스뉴스레터, 한국경제(2026.02.25)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 AI 인프라: AI CPU 병목 발생

- 현재 GPU의 성능 대비 CPU의 성능 부족 문제 대두. **AI Agent 지연 시간의 최대 90%는 CPU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업무별 지연 시간 및 발생 지점 분석(빨간색 박스가 CPU로 인한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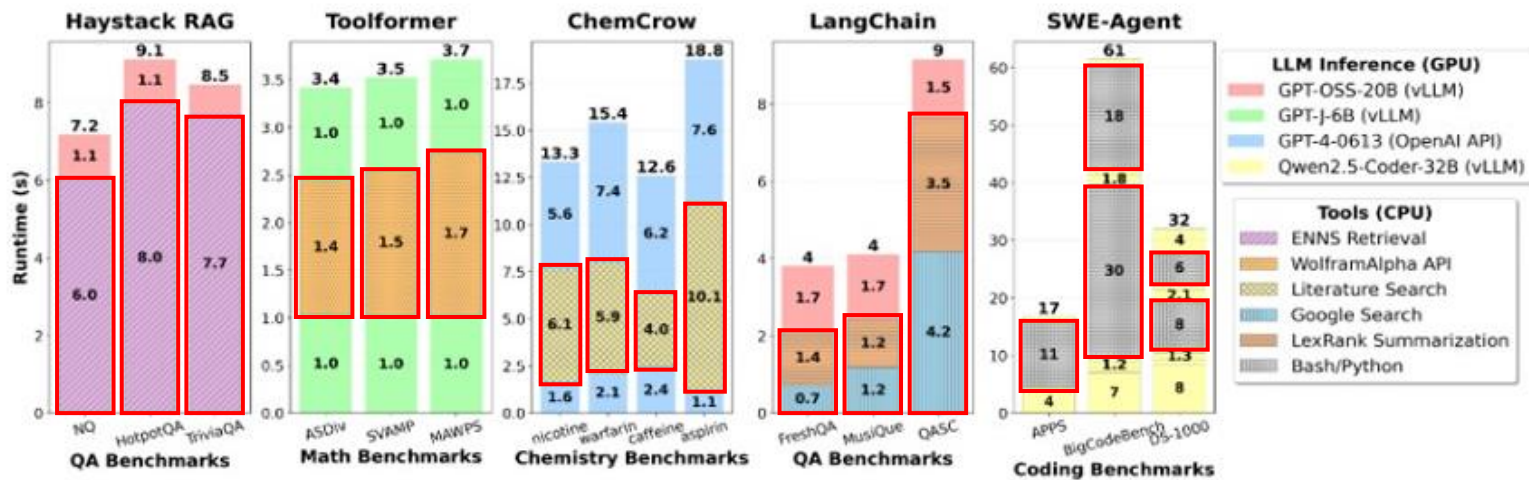


Figure 2: (a) Haystack with ENNS retrieval on QA benchmarks (b) Toolformer with WolframAlpha API on Math benchmarks (c) Chemcrow with literature (Arxiv/Pubmed) search tool on Chemistry benchmarks (d) Langchain with web search and LexRank summarization tools on QA benchmarks (e) Mini-SWE-Agent with bash/Python execution tools on coding benchmarks

주: 밝은 색이 GPU로 인한 지연 시간, 어두운 색이 GPU로 인한 지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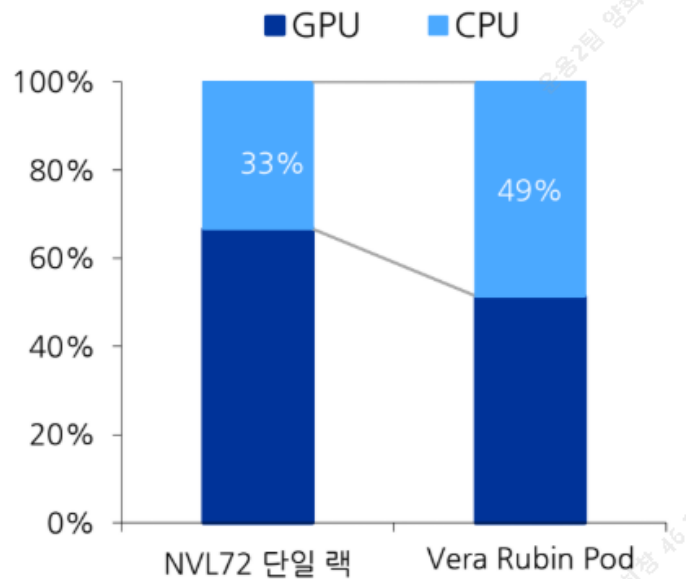
자료 : arXiv, 메리츠증권(2026.03.26)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 AI 인프라: AI CPU

-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젠슨황은 향후 **Vera CPU와 Rubin GPU 개별 서버로 분리하고 Vera CPU 랙의 개별 판매 시작 발표**
- AI Agent 시대로 접어들며 CPU가 GPU를 지원하던 역할을 지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판단
- AI서버 CPU 수요 확대로 인해 **2030년까지 서버용 CPU 시장 3배 성장 전망**

엔비디아 Vera Rubin 내 CPU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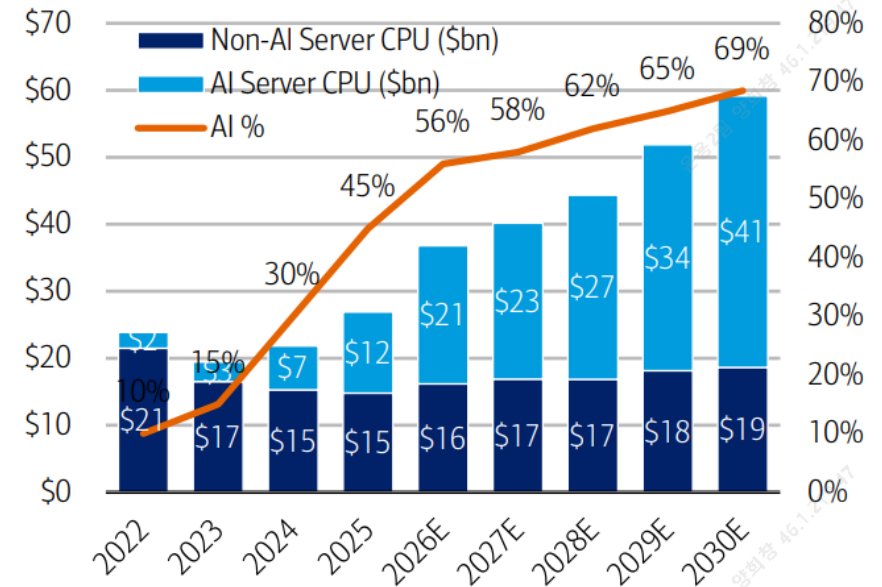
NVL72와 VR Pod의 GPU/CPU 비중



자료 : Nvidia, 메리츠증권(2026.03.27)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버 CPU 시장 전망(Non-AI와 AI용으로 구분)

Server CPU TAM and AI Server CPU as a % of m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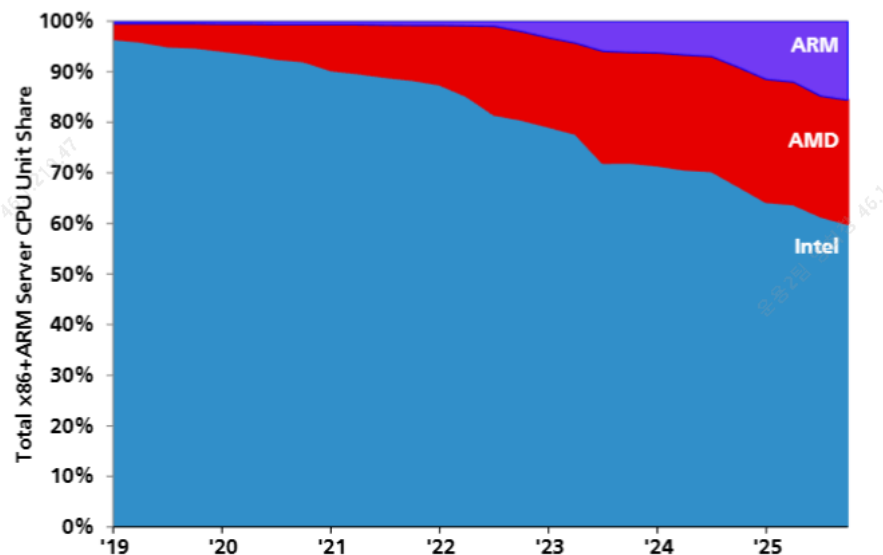
자료 : IDC, Mercury Research, BofA(2026.02.23)

운용 전략 AI 인프라: ARM

- Nvidia Vera CPU, AWS Graviton, Microsoft Cobalt, Google Axion 모두 **ARM** 아키텍처 기반의 CPU로 로열티 수취
- ARM은 3월 24일 자체 AI CPU 출시 및 **2031년 매출 \$25B, 순이익 \$9.6B 가이드نس 발표**(vs 2025년 매출 \$4B, 순이익 \$1.6B)
- ARM AI CPU의 고객은 OpenAI, Meta Platforms 등으로 자체 ASIC CPU가 없는 고객을 타겟

서버용 CPU 시장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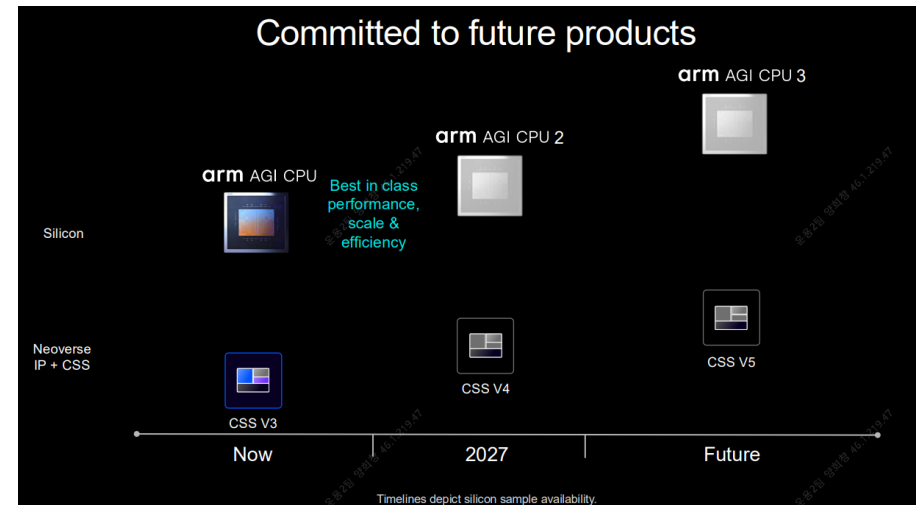
Figure 10: Intel, AMD and ARM Server CPU Market Share (Units)



자료 : Mercury Research, UBS(2026.03.25)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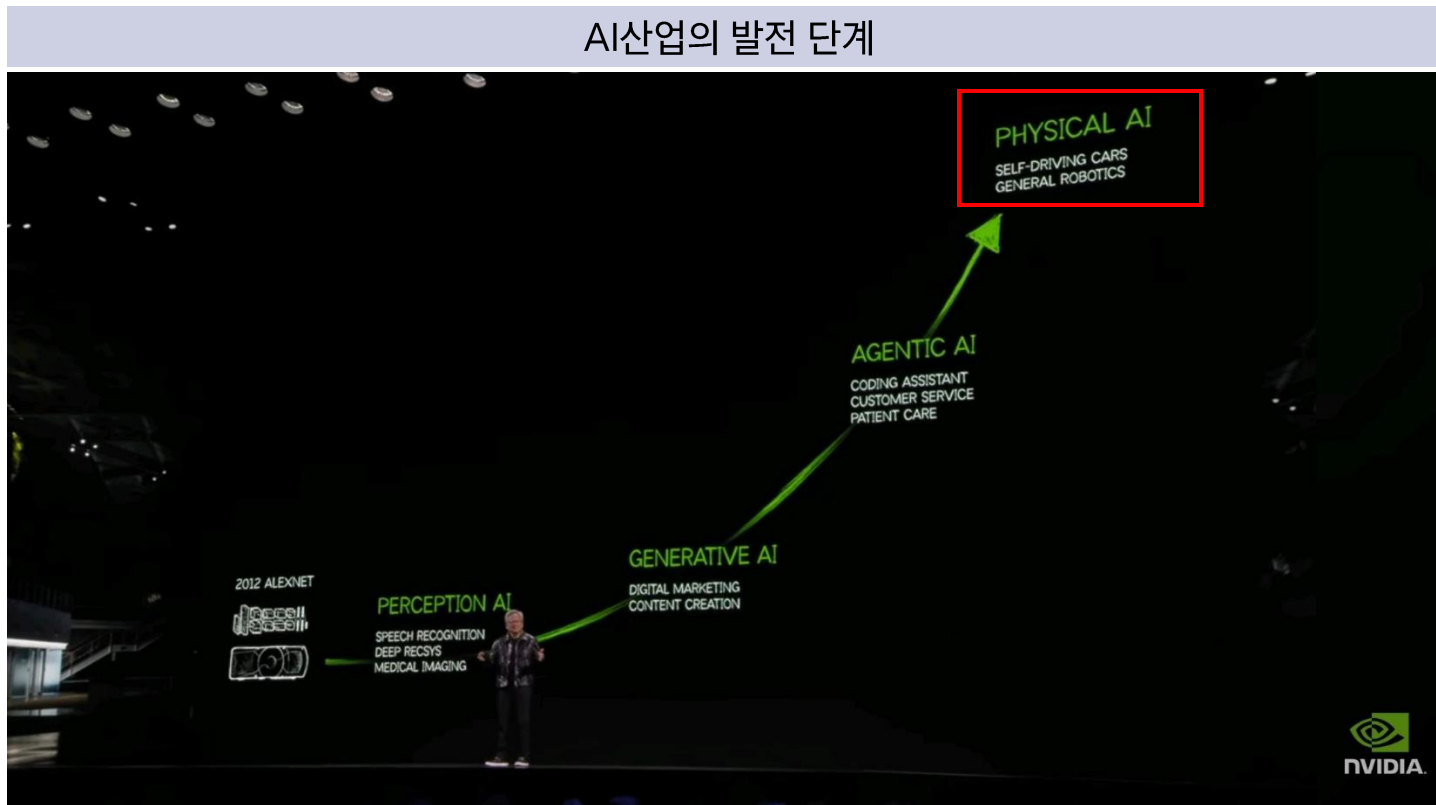
ARM 자체 AI CPU 제품 로드맵



자료 : ARM(2026.03.24)

운용 전략 AI 인프라: Agentic AI로 인한 추론 수요 폭발

- 2016년 Perception AI → 2022년말 Generative AI → 2024년말 Reasoning AI → 2026년초 Agentic AI → 2027년 Physical AI로 발전 전망. 추론 수요 및 AI인프라 수요 전망치 상향조정 전망



자료 : Nvidia(2025년 1월 8일), 삼성엑티브자산운용 정리

※ 상기 내용은 삼성엑티브자산운용의 주관적인 정리로써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 Physical AI 시장 개화

- 트럼프 정부는 2026년 AI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피지컬 AI**에 주목
- 루트닉 상부부 장관은 로봇 산업 CEO들과 최근 회동을 갖고 내년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논의.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에서 제조업 부활시키는 데 있어 피지컬 AI 기술이 핵심”이라고 언급
- 미국 국토교통부 또한 로봇 실무 그룹 구성하였고 의회도 로봇 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 자료 : Politico(25.12.05)

미국 정부의 다음 지원 섹터는 로봇

After AI push, Trump administration is now looking to robots

It's the latest example of how the Trump administration is embracing industrial policy in a bid to compete against Beijing in critical sectors.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attends a ceremony in the Rose Garden of the White House, Tuesday, Nov. 25, 2025, in Washington. | Evan Vucci/AP

자료 : Politico(2025.1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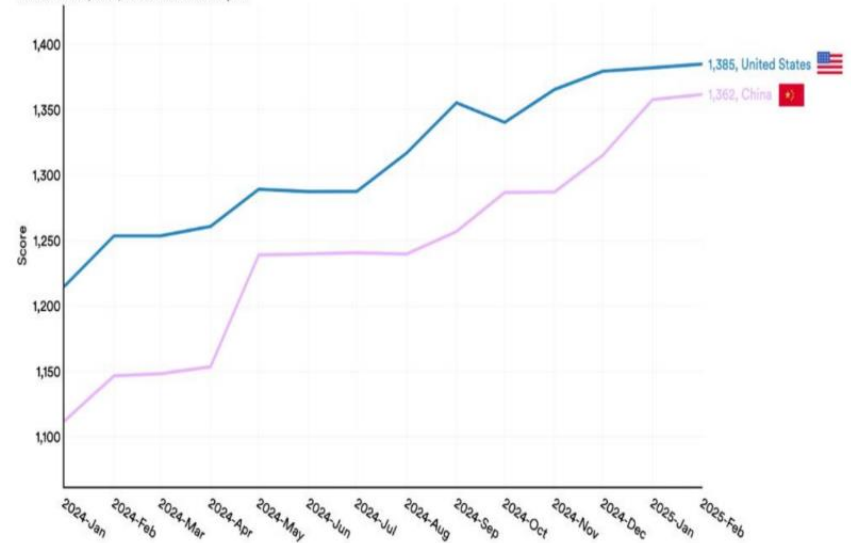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중 AI패권 전쟁 속 국가 주도 산업 정책 확대

미국과 중국의 AI 성능: 중국의 빠른 추격

Performance of top United States vs. Chinese models on LMSYS Chatbot Arena

Source: LMSYS, 2025 | Chart: 2025 AI Index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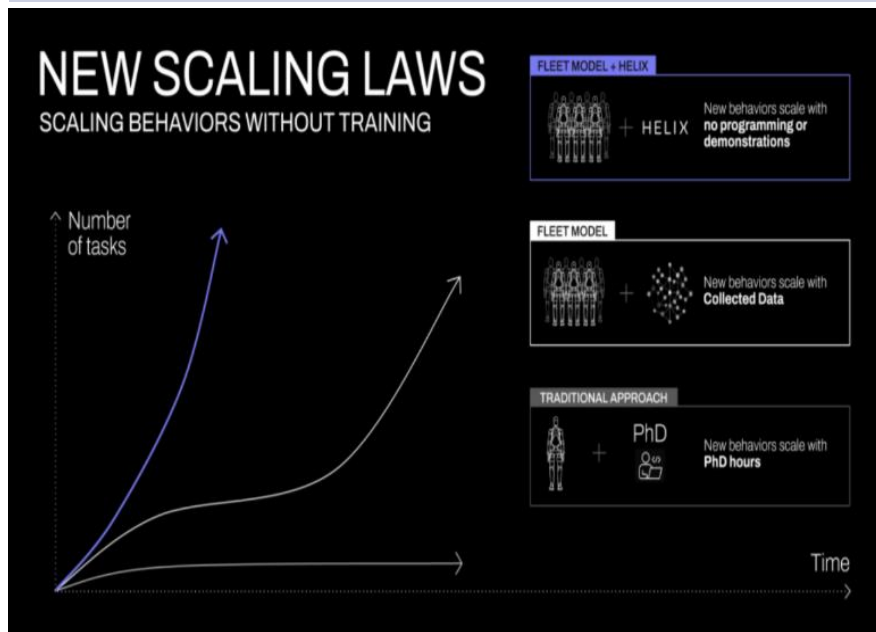


자료 : Stanford, 하나증권(2025.11.18)

운용 전략 Physical AI 시장 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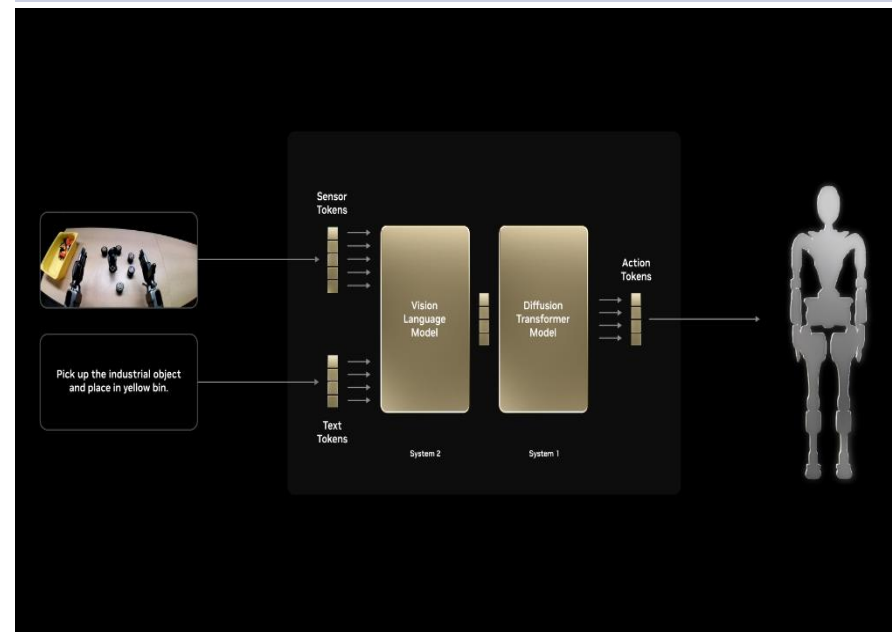
- 로봇 제어 기술 방식이 코딩 기반의 Rule-Based에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한 로봇 제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별도의 코딩이나 학습 없이 언어로 로봇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짐. 특정 작업이 아닌 **범용적인 로봇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판단**
- CES 2026 기조연설에서 Nvidia CEO 젠슨 황은 **로봇의 ChatGPT Moment**가 왔다고 발표

AI기술로 로봇 제어 기술 발전 속도 가속화



자료 : Figure AI, NH투자증권(2025.11.18)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Nvidia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GROOT



자료 : Nvidia(2026.01.21)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 Physical AI 시장 개화

- 인터넷에 있는 공개정보로 학습이 가능했던 LLM과 달리 Robot Foundation Model은 **피지컬AI 데이터를 새롭게 생산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 현재는 데이터 수집 단계로 인도 공장 직원들은 바디캠을 착용하고 일을 하고, 피지컬AI 기업들은 Data Collection Operator를 3교대로 채용하여 데이터 수집 중으로 파악

인도 공장 노동자들은 바디캠 착용 시 추가 수당 수취



자료 : DWnews(2026.07.12)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Agibot 3교대로 직원들이 데이터 생성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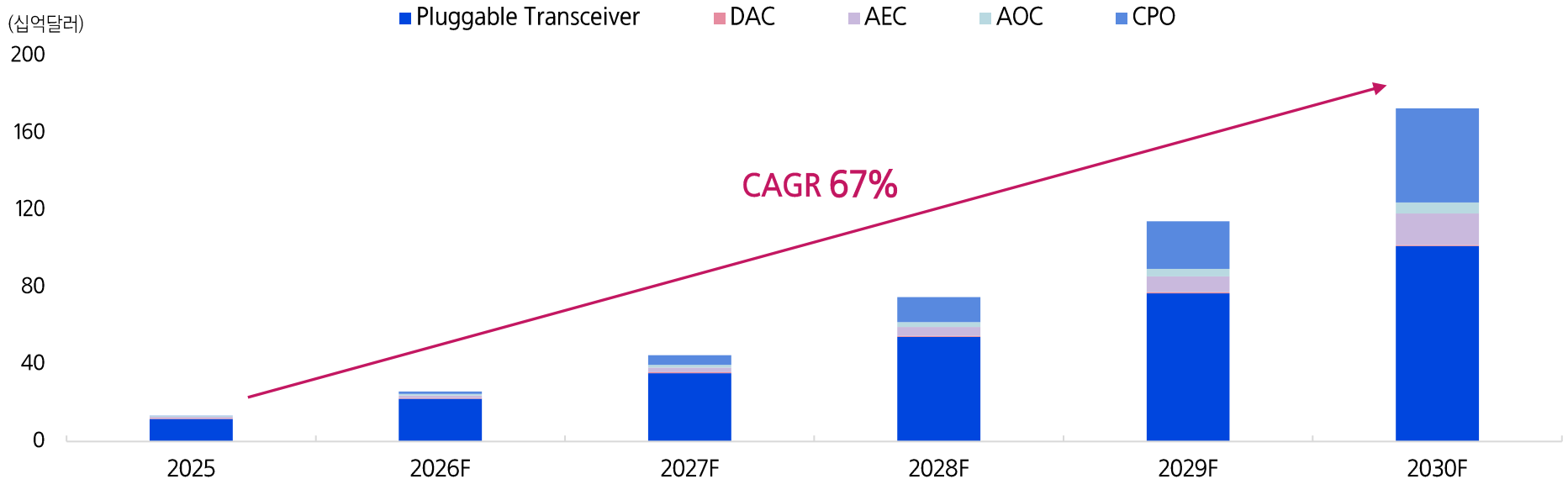


자료 : Agibot, Getty Images(2026.07.10)

미국 광통신 인프라의 기술적, 양적 레벨업 전망

- 향후 구리 통신선의 병목을 해결하기 위하여 '27~'28년경 CPO(Co-Packaged Optic)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전망
- CPO란 AI 가속기 외부에 존재했던 광통신 모듈을 AI 가속기와 같은 기판 위에 실장하여 통신 지연을 최소화시키는 기술
-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CPO 등 신기술의 적용과 미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설 붐으로 인해 AI 데이터센터 인터커넥트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AI 데이터센터 인터커넥트 시장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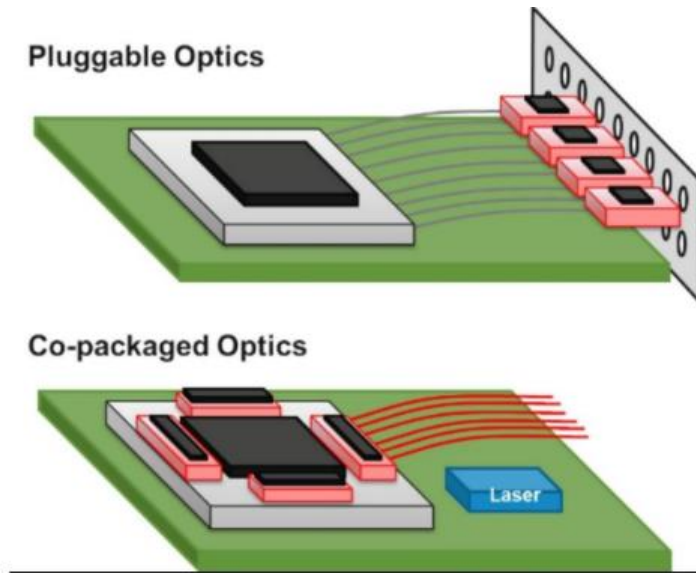


자료 : Trendforce, LightCounting, Dell'Oro Group, Yole Developpement, 한국투자증권 (2026.05) ※ 상기 내용은 자료 작성 시점의 전망으로 향후 이와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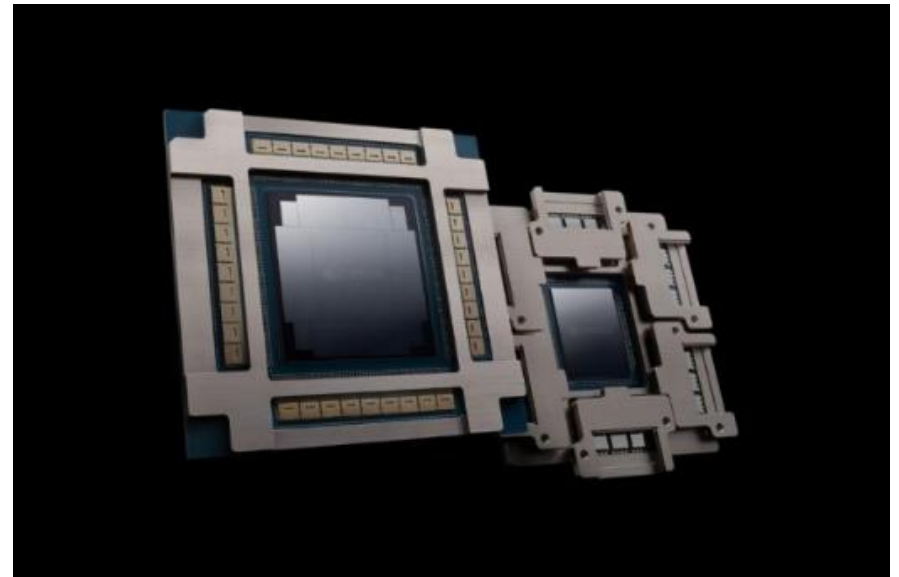
CPO(Co-Packaged Optics)란?

- 기존 광통신 모듈은 'AI 가속기'나 '네트워크 스위치 제어 칩'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였음
- 이로 인해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전력 소비 효율에 불리한 점이 존재
- CPO란 광통신 모듈을 'AI 가속기' 또는 '네트워크 스위치 제어 칩'과 같은 기판 위에 실장함으로써 전송 속도와 전력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기술 (HBM 역시 AI 가속기 외부에 존재하던 메모리 모듈이 가속기 기판 위에 같이 실장되는 개념)

기존 플러거블 모듈 방식 vs CPO 방식



엔비디아 스펙트럼-X의 실리콘 포토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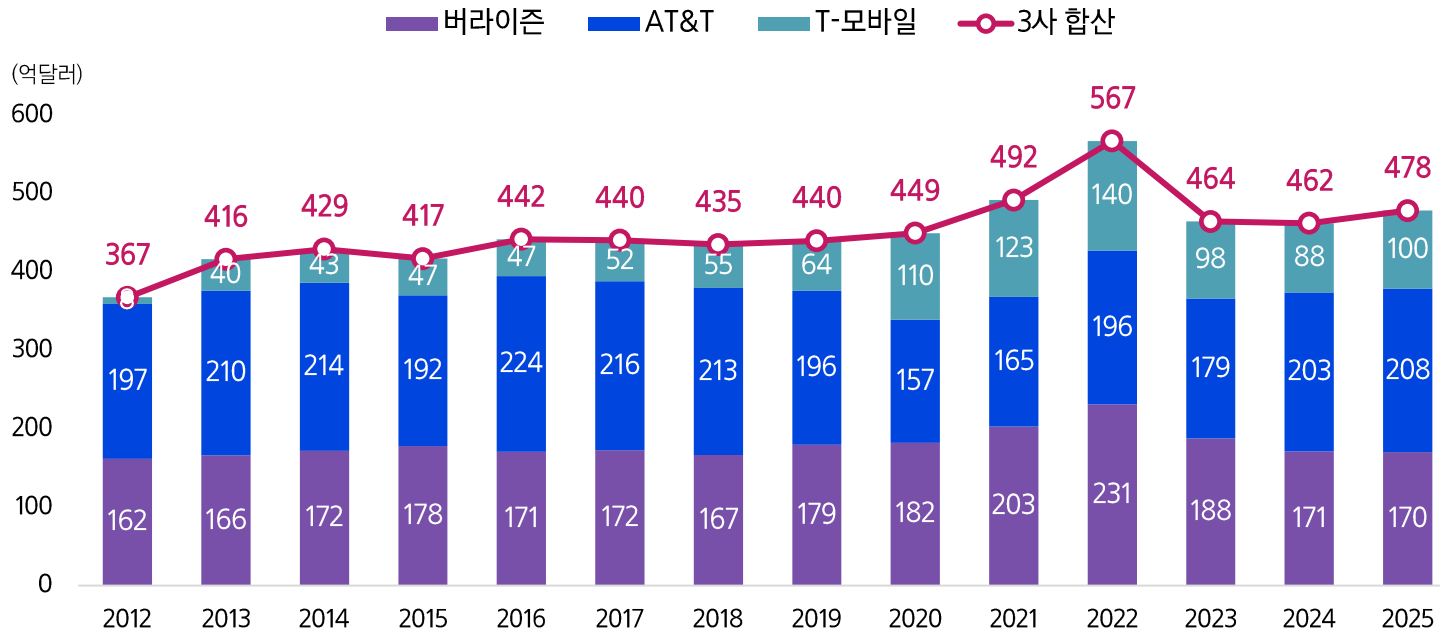


자료 : 키사이트, 엔비디아, 한화투자증권 (2026.03)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요 통신사들의 CAPEX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미국 통신사 **AT&T**는 '26년 3월 10일 **향후 5년간 2,500억달러(연평균 500억 달러)** 규모의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발표
- 미국 메이저 통신 3사(버라이즌, AT&T, T-모바일)의 합산 CAPEX는 지난 10년간(2016~2025) 평균 467억 달러
- **향후 AT&T 혼자만으로도 과거 3사 합산 CAPEX 규모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다른 통신사들의 투자 확대 역시 기대됨**

미국 통신 3사 합산 CAP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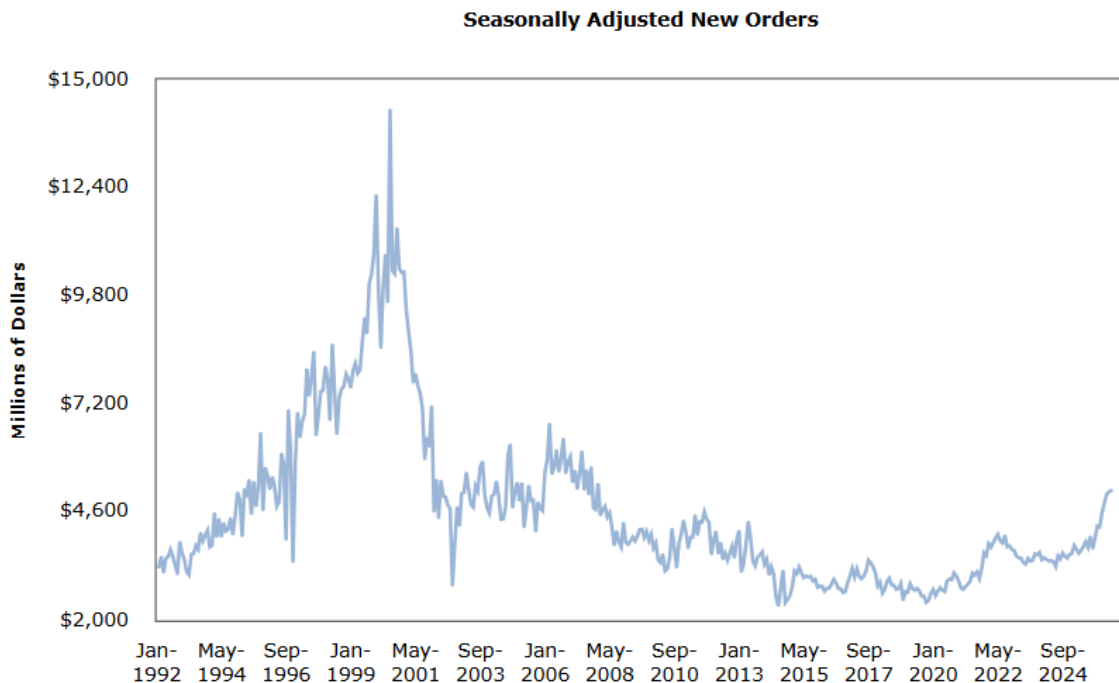
**AT&T, '26년 3월 10일에
향후 5년간 2,500억달러
투자 계획 발표
(연평균 500억 달러)**

자료 : 각 사 사업보고서, 삼성엑티브자산운용 (2026.03)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탈출하기 시작하는 미국 통신장비 신규수주액

- 미국 통신장비 신규수주액은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 당시 크게 성장한 후 20여년 동안 침체돼 있었음
- 그러나 2020년 이후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신규수주액 추세가 서서히 올라오는 상황
- 향후 한국 기자재 업체들의 미국향 납품이 확대되기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

미국 통신장비 신규수주액 (1992년 ~ 2026년 6월)



미국 통신 인프라
슈퍼 사이클의
초입이라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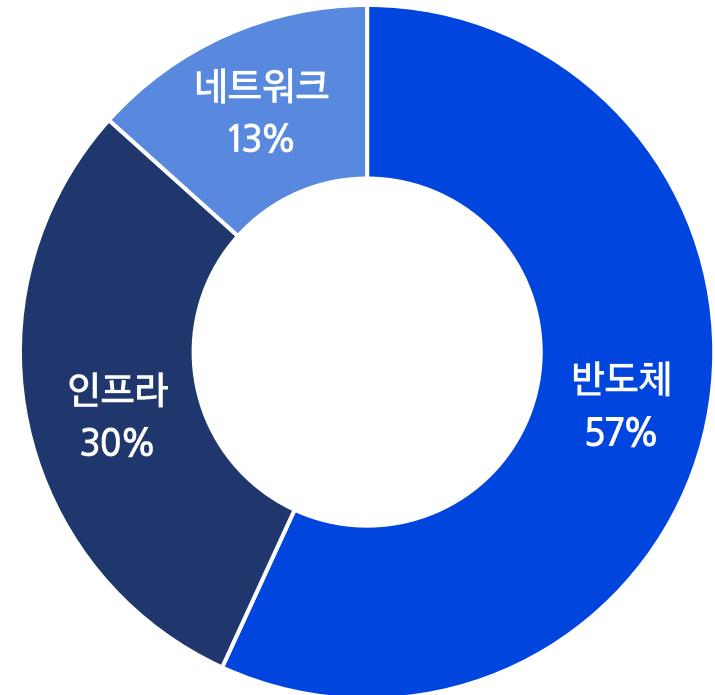
자료 : US Census Bureau (2026.06)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KoAct AI인프라액티브 ETF 포트폴리오 현황

포트폴리오 TOP 25

번호	종목명	업종	비중(%)
1	삼성전자	반도체	9.97
2	SK하이닉스	반도체	9.68
3	삼성전기	반도체	8.45
4	LS ELECTRIC	인프라	6.07
5	대덕전자	반도체	4.37
6	HD현대일렉트릭	인프라	4.32
7	NAVER	네트워크	4.19
8	삼성SDI	인프라	3.38
9	테스	반도체	3.12
10	RF머트리얼즈	네트워크	3.12
11	대한전선	인프라	2.94
12	원익IPS	반도체	2.85
13	산일전기	인프라	2.83
14	효성중공업	인프라	2.81
15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2.38
16	한양디지텍	반도체	2.37
17	두산퓨얼셀	인프라	2.31
18	현대건설	인프라	2.28
19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2.20
20	기가비스	반도체	2.19
21	피에스케이	반도체	1.92
22	RFHIC	네트워크	1.71
23	NHN	네트워크	1.59
24	가온칩스	반도체	1.45
25	심텍	반도체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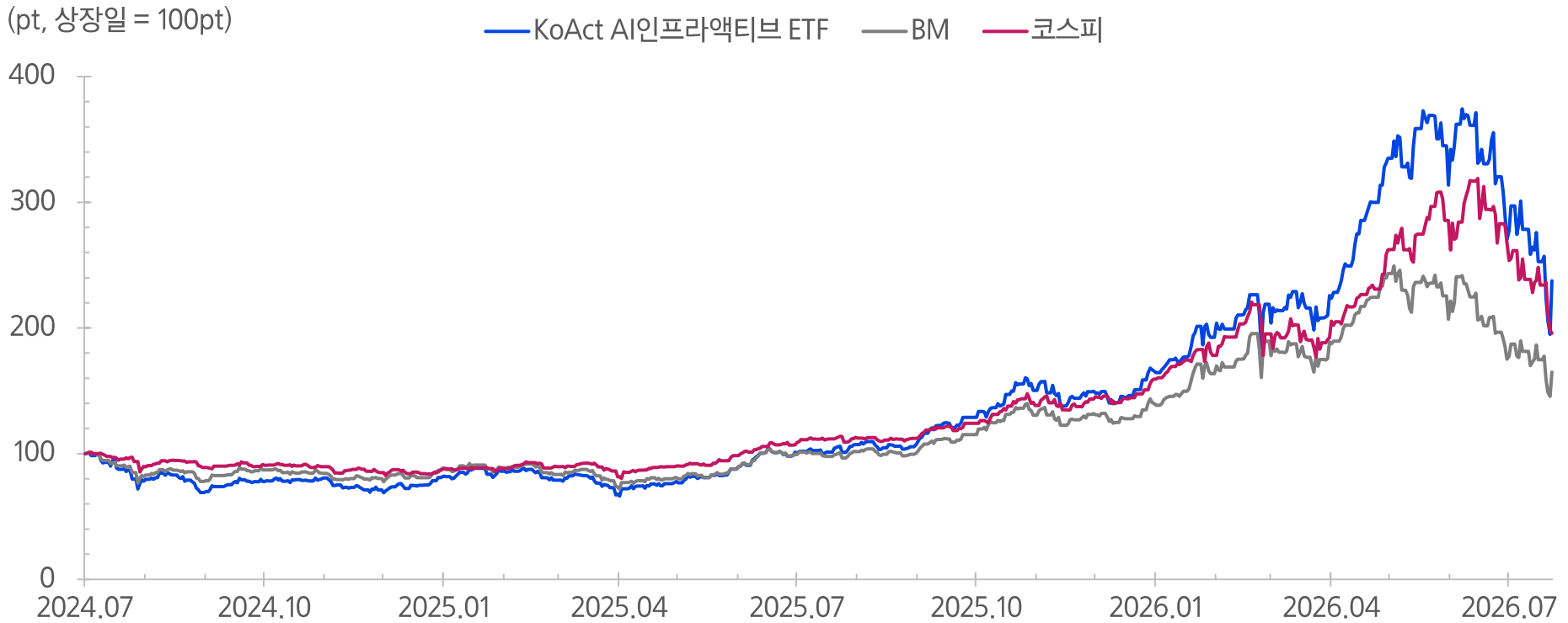
분류별 비중



※ 삼성액티브자산운용, 2026년 8월 7일(전체 종목 35개) PDF 기준 ※ 구성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KoAct AI인프라액티브 ETF 수익률 현황 (상장 이후 코스피 대비 +41.9%p 초과)

구분	3개월	6개월	1년	상장 이후
KoAct AI인프라액티브 ETF	-20.8%	+18.0%	+124.3%	+137.6%
BM	-26.6%	-3.8%	+63.5%	+64.8%
코스피	-16.4%	+7.1%	+71.9%	+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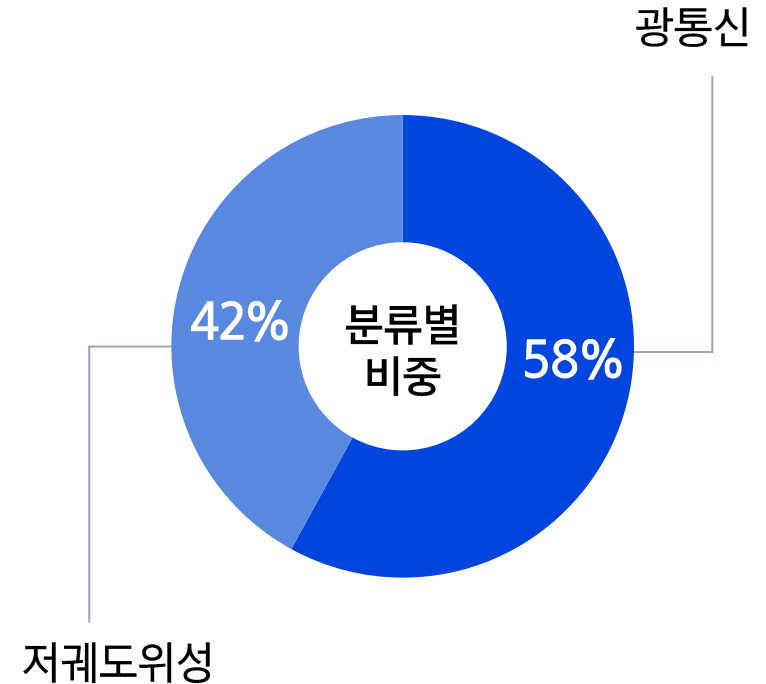
※ 2026.07.31 기준, 순자산 규모: 394억원, 2024.07.08 설정, 2024.07.09 상장,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상기 차트는 상장일 기준가를 100pt로 지수화하여 계산 BM: Solactive AI인프라 지수

※ 상기 수익률은 NAV 기준 세전 수익률로,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KoAct 광통신&위성네트워크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 현황

2026년 7월 14일 상장

번호	종목명	테마 구분	AP 비중(%)
1	RF머트리얼즈	광통신	10.2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위성	7.1
3	한국항공우주	위성	7.1
4	파이버프로	광통신	5.7
5	오이솔루션	광통신	5.6
6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	위성	5.6
7	RFHIC	광통신	4.5
8	인텔리안테크	위성	4.4
9	대한광통신	광통신	4.4
10	솔리드	광통신	3.7
11	세트렉아이	위성	3.4
12	한화시스템	위성	3.2
13	우리로	광통신	3.2
14	케이엠더블유	광통신	3.1
15	컨텍	광통신	2.8
16	자람테크놀로지	광통신	2.8
17	현대로템	위성	2.6
18	에이치브이엠	위성	2.5
19	루미르	위성	2.5
20	SK텔레콤	광통신	2.4
21	티엠씨	광통신	2.4
22	이노스페이스	위성	2.3
23	이수페타시스	광통신	2.2
24	두산	광통신	2.2
25	성호전자	광통신	1.7
26	스피어	위성	1.3
27	아모텍	광통신	1.1



※ 삼성액티브자산운용, 2026년 8월 7일(전체 종목 27개) PDF 기준 ※ 구성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력 산업: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전력 인프라 부족이 데이터센터 건설의
핵심 병목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판단

전력망 부족과 민간 전기료 상승으로 인해
빅테크 업체들 사이에서 온사이트 발전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

※ 상기 내용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주관적인 정리 내용으로 향후 달라질 수 있음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미국 외 지역들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

- 2026년 2월말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스 가격이 상당폭 상승
- 종전 합의로 하향 안정화되는 듯 하였으나 6월 하순 이후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7월 하순 현재까지 꾸준히 가격 반등
- 천연가스 자체 생산이 많은 미국 가스 가격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 미국 외 지역들은 가격 상승세 지속 중이라 판단

유럽 천연가스 가격 추이 (최근 1년 기준)



동북아 천연가스 가격 추이 (최근 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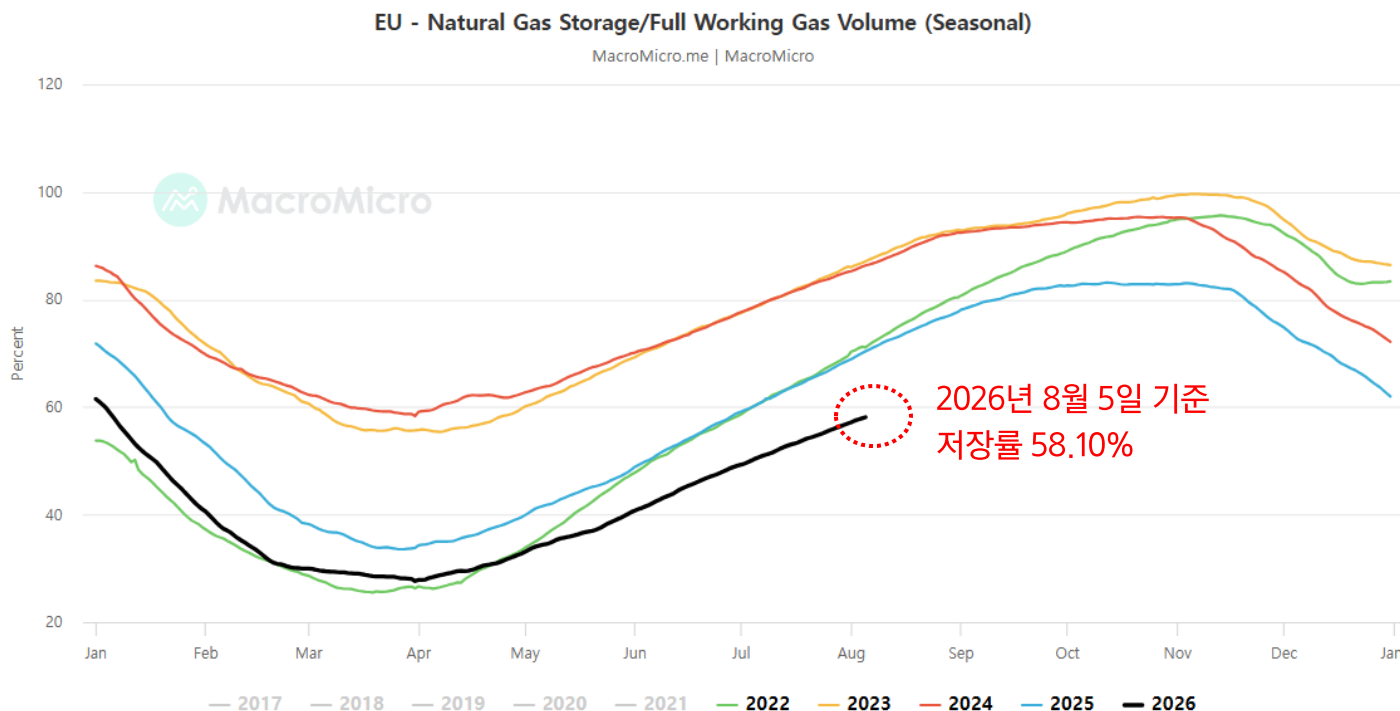
자료 : Trading Economics (2026.08.07)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천연가스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유럽

- 2026년 8월 5일 현재 유럽연합의 천연가스 저장률은 58.10%로 2022년 이후 최하단에 위치 (MacroMicro, AGSI)
- 카타르 등 중동산 가스 수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26년 6~7월 들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면서 러시아산 가스 수입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

유럽 천연가스 저장률 추이 (최근 5년)



자료 : MacroMicro, AGSI (2026.08.05)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럽의 고질적인 여름철 폭염이 에너지 공급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 2026년 7월 13일 EuroNews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폭염으로 강물 온도가 급등하자 6월 이후 자국 내 3개 원자력 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 다른 7개 원전은 출력 축소 조치 시행
- 여름철 유럽의 폭염과 가뭄이 만성화되면서 여름마다 프랑스 내륙 강가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2026년 6월 22일부터 가동을 일시 중단한 프랑스 남서부 골페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자료 : EuroNews, AFP, 연합뉴스, 기후에너지데이터뱅크 (2026.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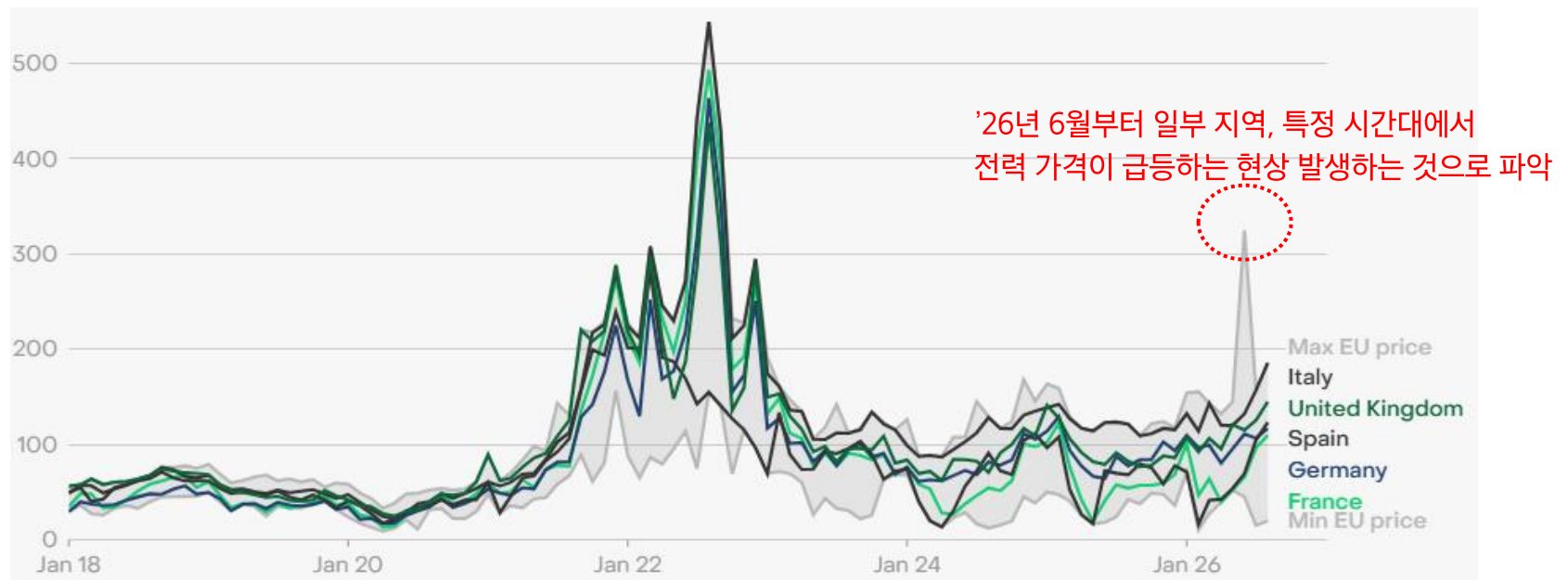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전기료는 2026년 6월부터 불안한 모습 관찰되기 시작했다고 판단

- 유럽연합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높은 편이나 천연가스 발전소의 비용 상승 및 프랑스 원전의 가동률 저하 등에 따라 2026년 6월 전력 도매 가격이 간헐적으로 크게 튀어오르는 현상 발생
- Ember의 2026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2025년 전체 발전량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6.7%, 원자력 23.4%, 태양광 13.2%, 풍력 16.9% 등

유럽연합 월별 전력 도매 가격 추이 (2018.01 ~ 2026.08)

(유로/M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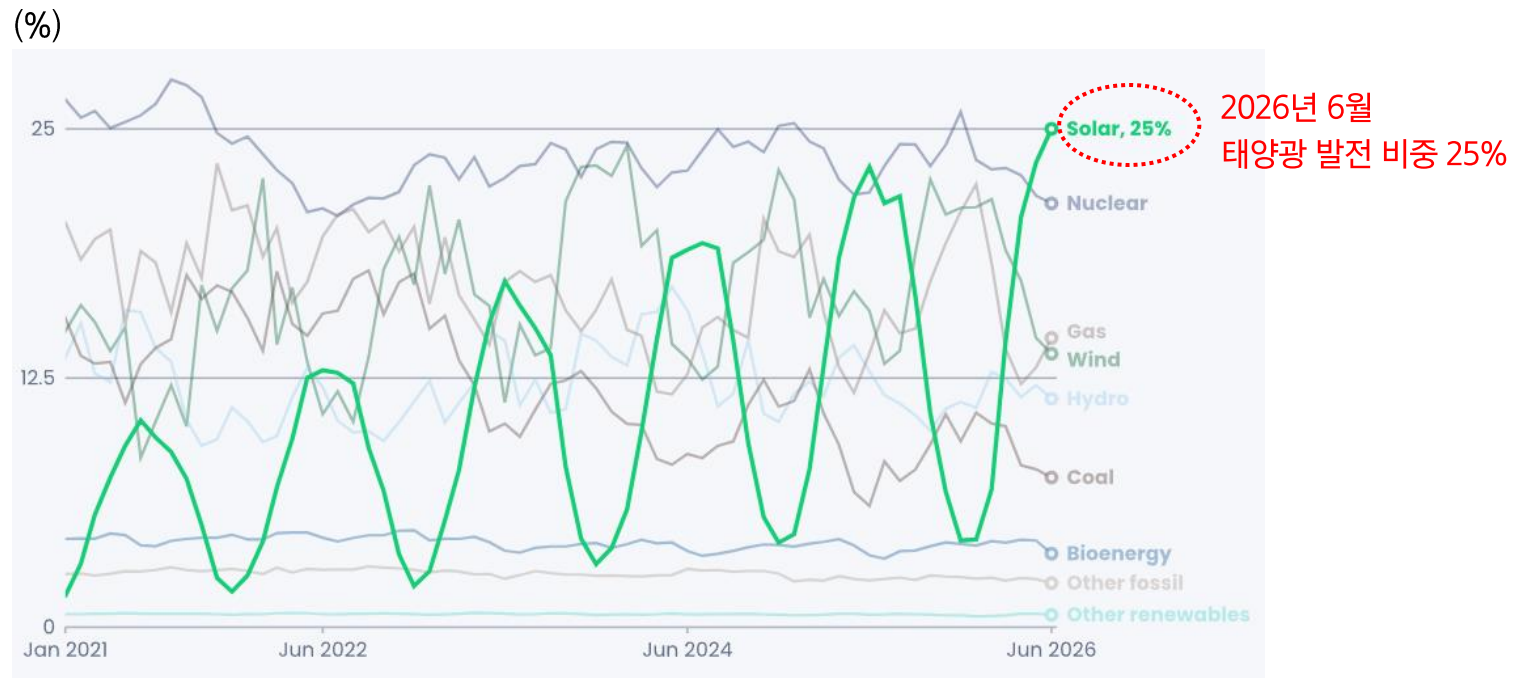
자료 : EMBER (2026.08.06)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럽 에너지 공급난 속에서 태양광 발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6월 기준 25%로 원자력을 제치고 최대 발전원에 등극 (2026.07 EMBER)
- EMBER의 '26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설치가 빠른 발전원으로써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

유럽연합 월별 발전량에서 발전원별 비중 추이 (2021.01 ~ 202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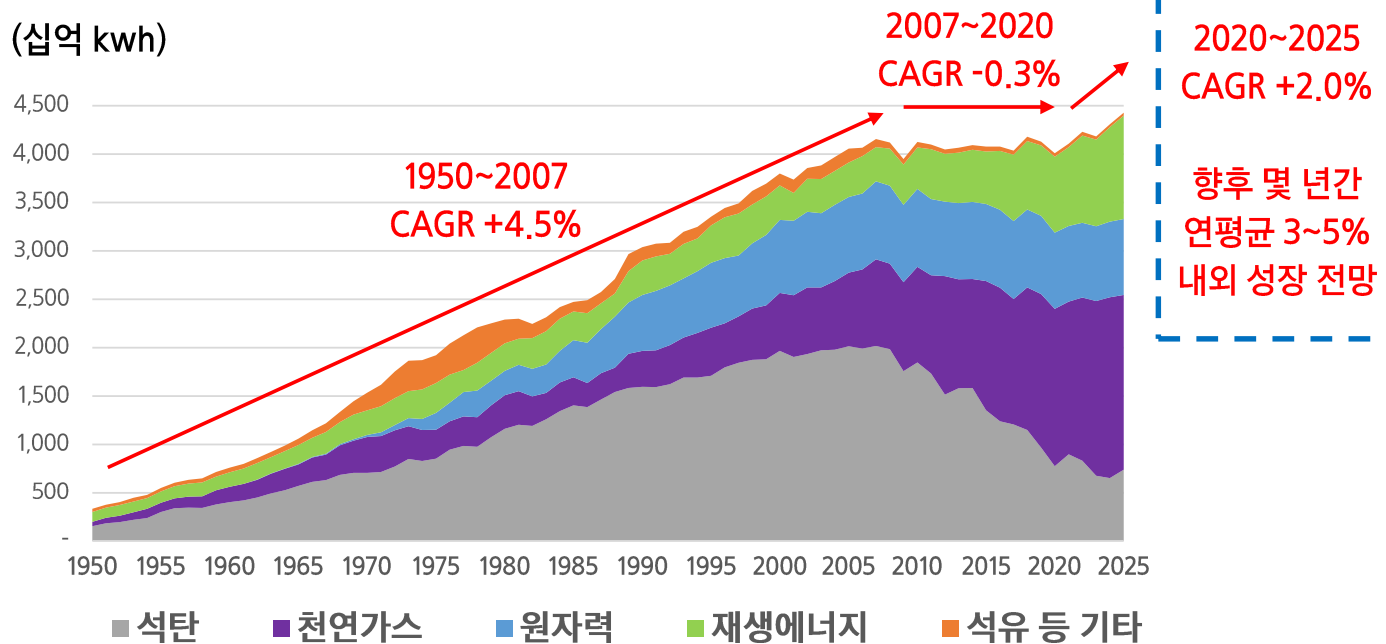
자료 : EMBER (2026.07.14)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여년만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미국 전력 수요

- 미국은 2007~2020년 발전량 증가율이 연평균 -0.3%에 불과할 정도로 전력 수요가 정체
- 아시아 신흥국 등으로 미국의 제조업 공장들이 빠져나갔던 것이 전력 수요 정체의 주된 이유로 판단
- 하지만 미국의 전력 수요는 **AI, 제조업 리쇼어링, 전기차** 등에 힘입어 다시 구조적으로 성장할 전망

미국 연도별 발전량 추이 (1950~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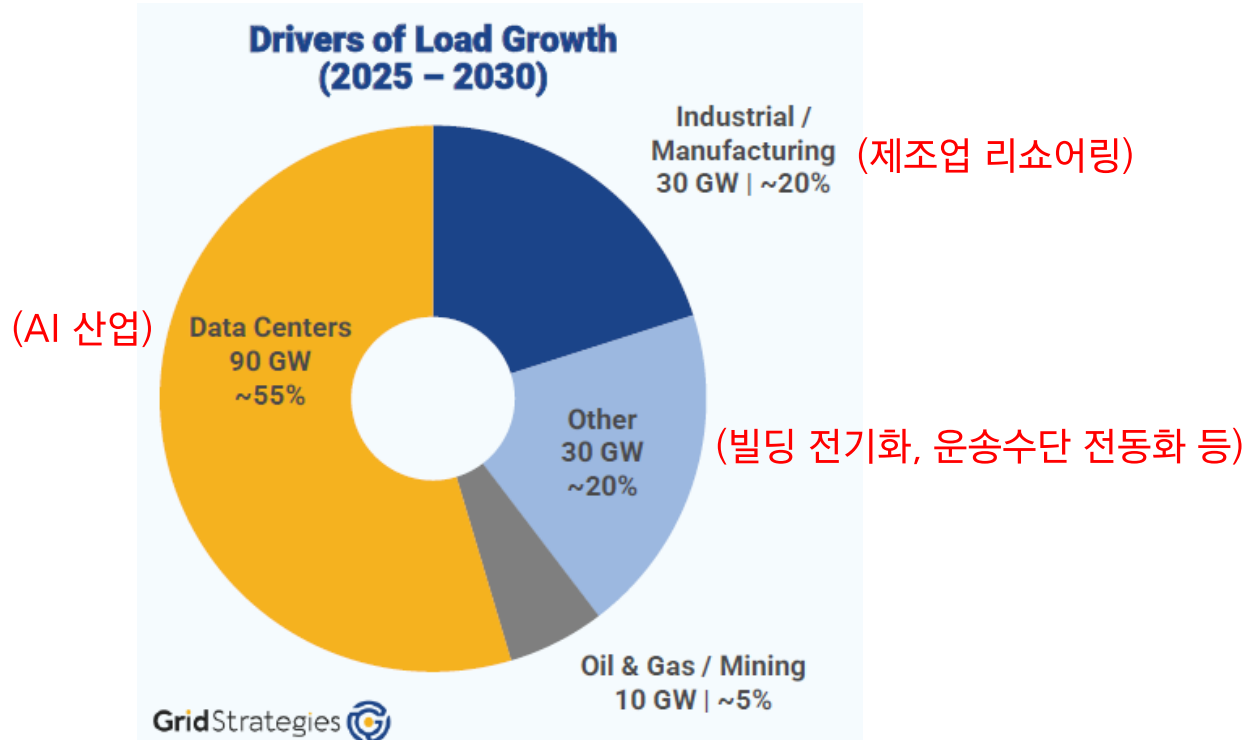
자료 : US EIA(2026.02), 삼성엑티브자산운용
Note: 용량 1MW 이상 발전기 기준

※ 상기 내용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미국의 주요 전력 소모원으로 부상

- 2025년 11월 미국 Grid Strategies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전력 수요 증가분에서 데이터센터 산업이 약 55%를 차지할 전망
- 이는 AI 데이터센터가 제조업 리쇼어링, 전기차 못지 않은 전력 수요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방증

2025~2030년 미국 전력 수요 증가분에서 각 сек터가 차지하는 비중 전망



자료 : Grid Strategies (2025.11)

※ 상기 내용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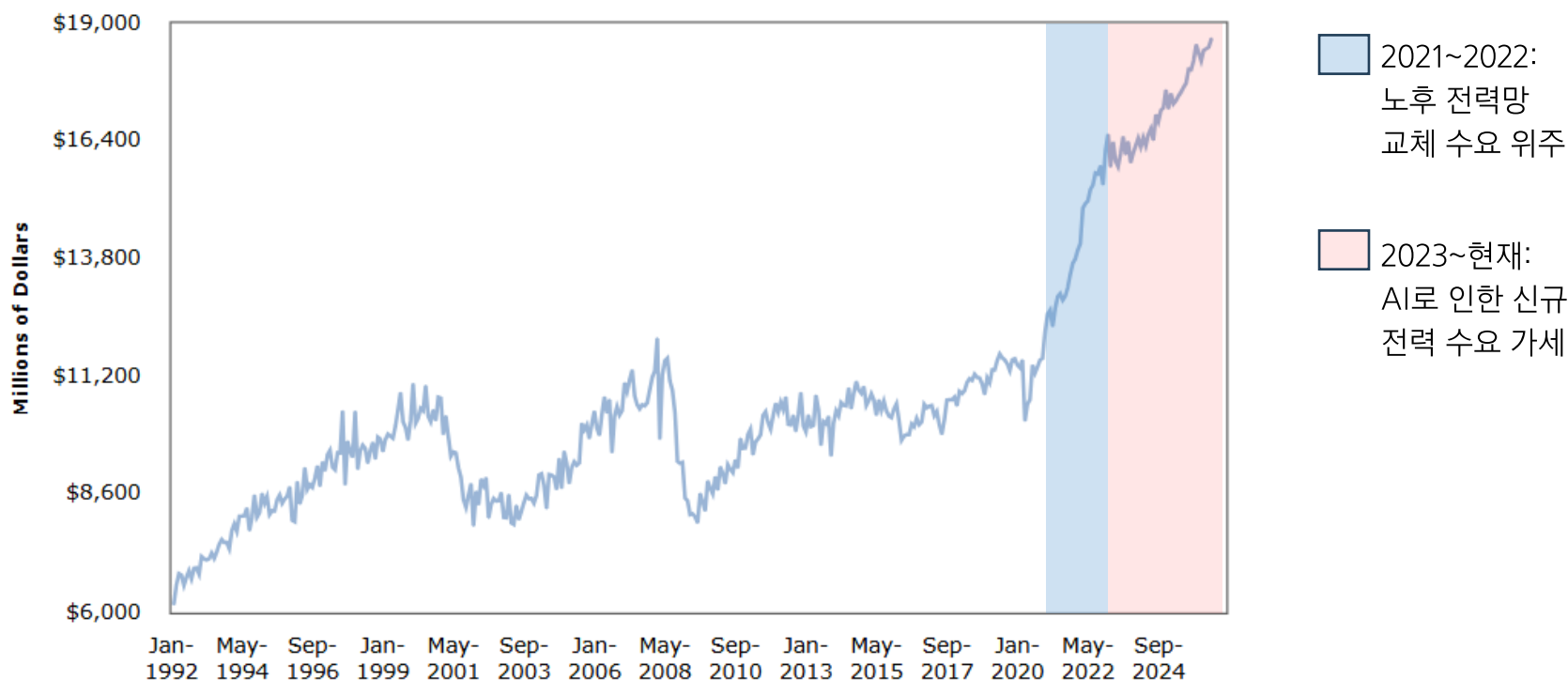
역사적 고점을 꾸준히 경신하고 있는 미국 전력기기 신규수주액

- GE Vernova,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국내외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주잔고가 2029~2030년 물량까지 차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사는 미국 전력설비 산업의 강한 업황이 적어도 2020년대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 언급된 기업들은 산업 설명을 위한 것이며, 매수/매도에 대한 의견이 아닙니다.

미국 전력기기 신규 수주액 (1992년 ~ 2026년 6월)

Seasonally Adjusted New Or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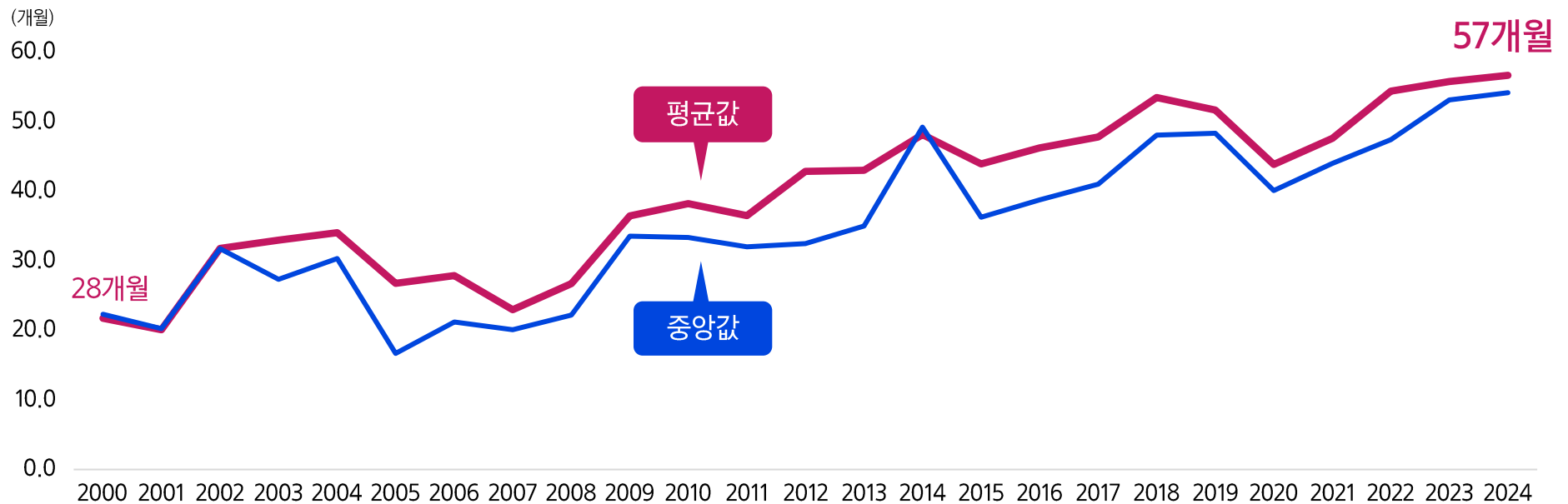
자료: 각 사,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26.06),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음

미국 전력망 부족은 얼마나 심각한가?

- '25년 8월 버클리 랩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전소 계통연결 최초 신청부터 상업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28개월(2.3년)이었으나 2024년에는 평균 57개월(4.8년)까지 크게 늘어남
- 이로 인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근 지역의 대규모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

미국에서 발전소의 전력망 연결 신청에서 상업가동까지 걸리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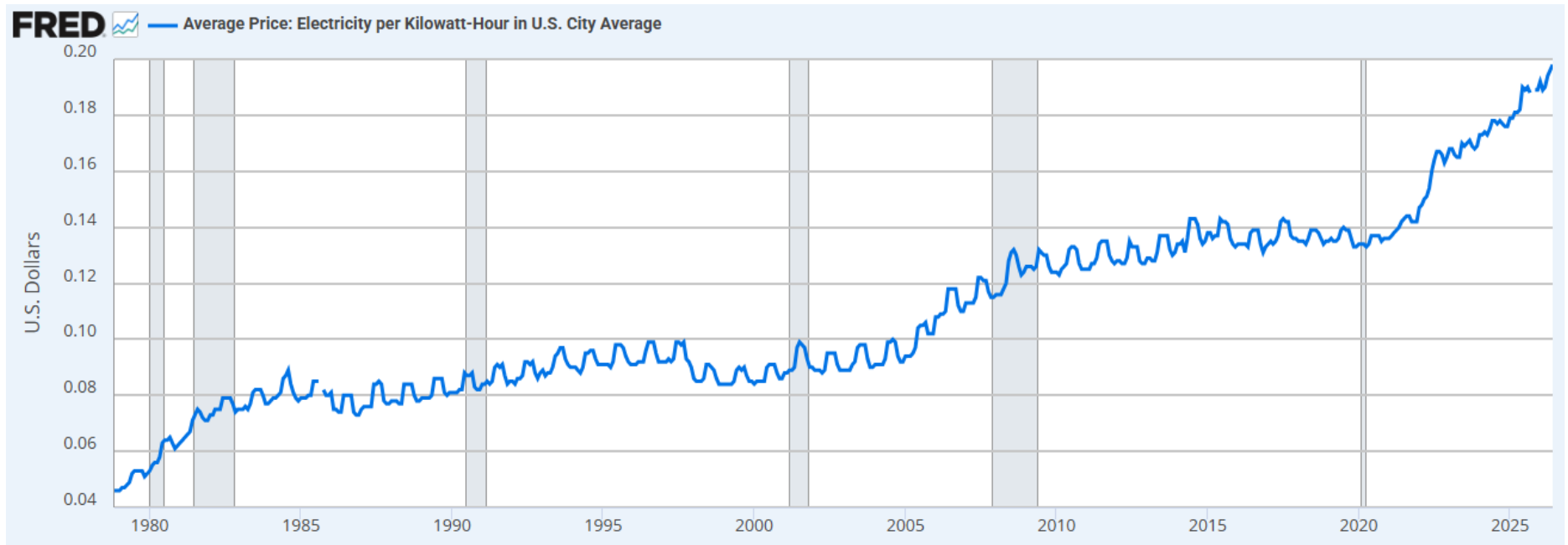


자료 : Berkeley Lab (2025.08), 삼성엑티브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미국 전기료

- 지역 전력망의 중심이 되는 대형 원자력, 가스 발전소들이 생산하는 전력을 데이터센터들이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해당 지역 전기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
- 2026년 2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일반 소비자들의 전기료 급등을 막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2026년 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 관련 의회 국정연설)

미국 도시 평균 전기료 (1978 ~ 202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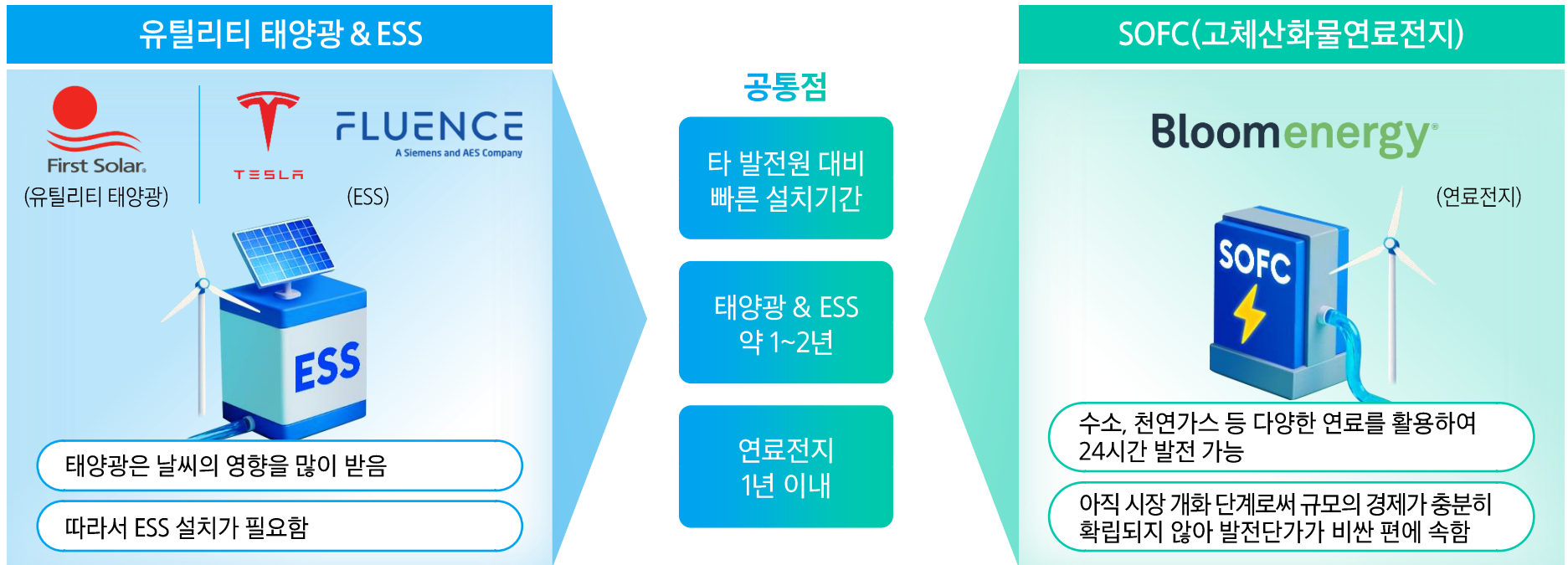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via FRED (2026.06)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음

마음 급한 빅테크의 현실적 대안은 온사이트 발전(On-site Power)이라 판단

- 온사이트 발전이란 번역 그대로 ‘현장 발전’을 의미. 전력을 소비하는 장소 근처에 자체 발전소를 지어 직접 전기를 생산
- 미국에서 전력망 부족으로 계통연결이 지연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지면서 온사이트 발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판단
- **최근 미국 온사이트 발전의 주류 트렌드는 태양광 &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연료전지라고 판단**
- 트럼프 2기 들어 SMR(소형모듈원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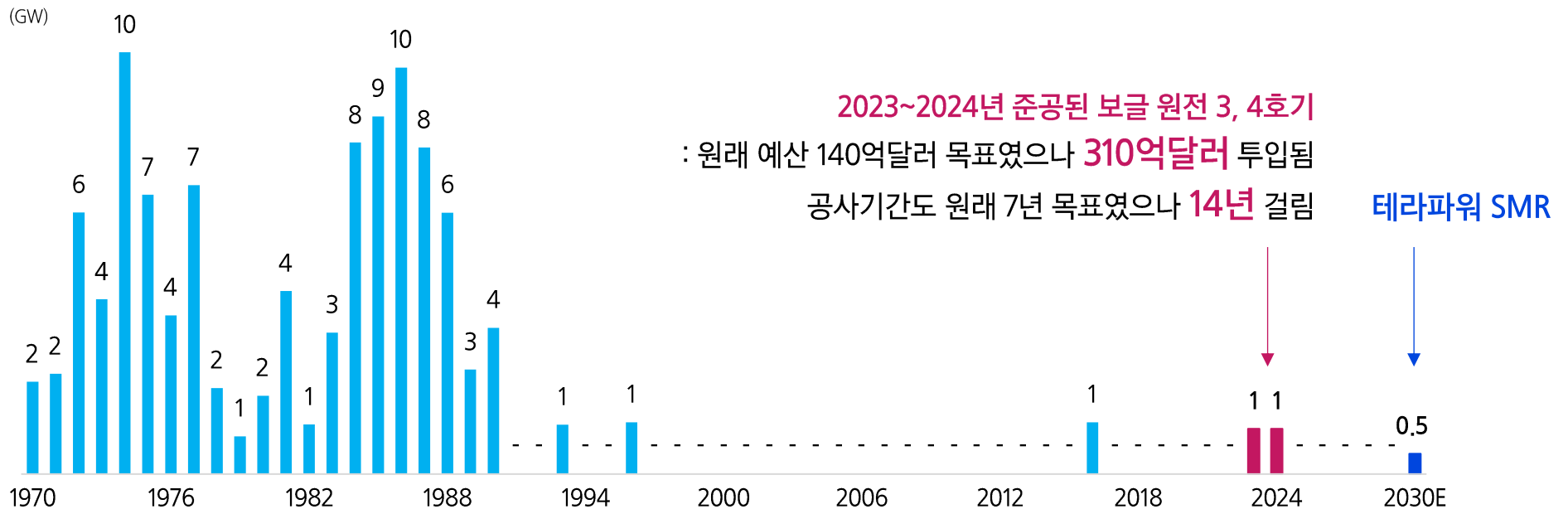


자료 : US EIA, 각 사, 삼성엑티브자산운용 정리(2025.10) ※ 언급된 기업들은 산업 설명을 위한 것이며, 매수/매도 의견이 아닙니다. ※ 상기 내용은 삼성엑티브자산운용의 주관적인 정리 내용으로 향후 달라질 수 있음

미국, 2030년 이전에는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이 제한적일 전망

- 1979년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설치량은 1990년대부터 급감
- 여전히 높은 건설비용(=발전단가) 때문에 미국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은 거의 없는 상황 (2026년 6월 EIA Data 기준)
- **미국 원자력 건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SMR(소형모듈원전)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2030년대 초중반 전망**

미국 원자력 발전소 연도별 신규 설치량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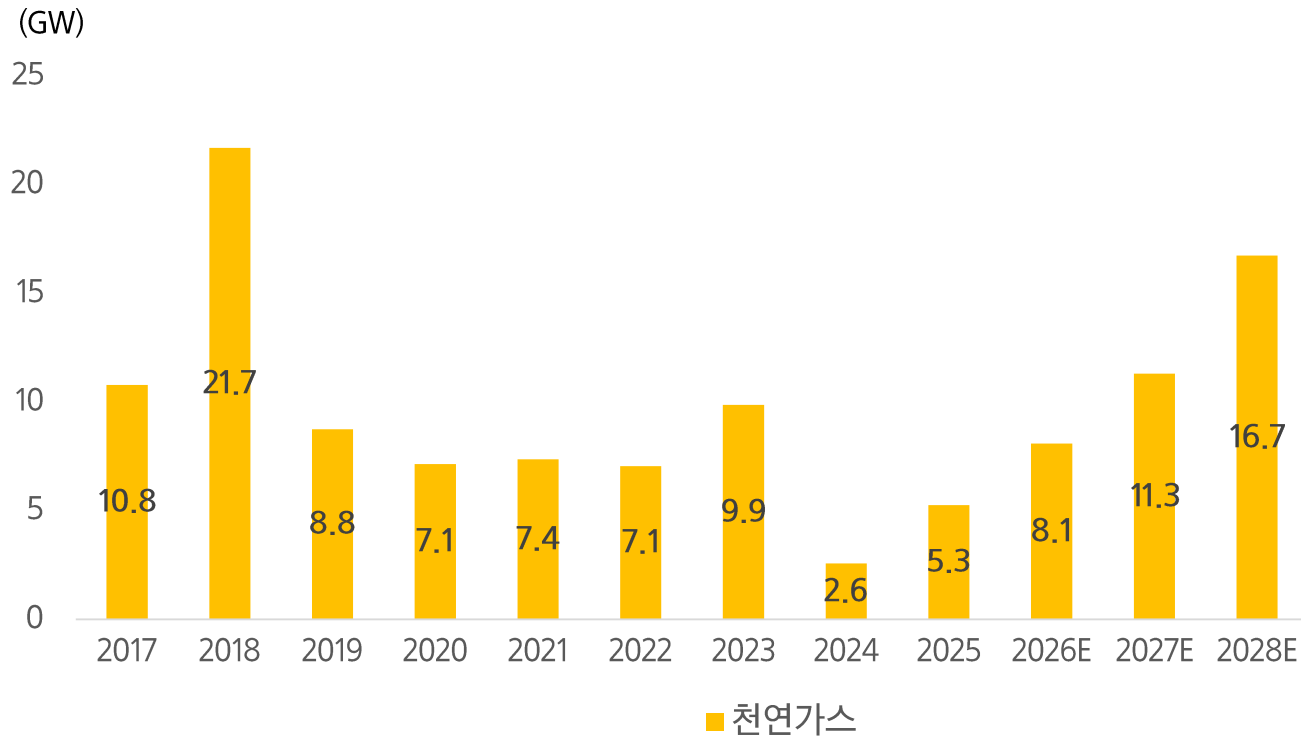


자료 : US EIA(2026.06),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자료 작성 시점의 전망으로 향후 이와 달라질 수 있음

미국, 천연가스 발전소 준공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

- 2024년부터 GE Vernova, Siemens Energy 등 가스터빈 업체들에게 미국 시장 가스터빈 발주가 늘어나는 모습 포착
- 이에 따라 2024년을 저점으로 미국 내 가스 발전소 준공이 점차 늘어날 전망 (2026년 6월 EIA Data 기준)

미국 연도별 천연가스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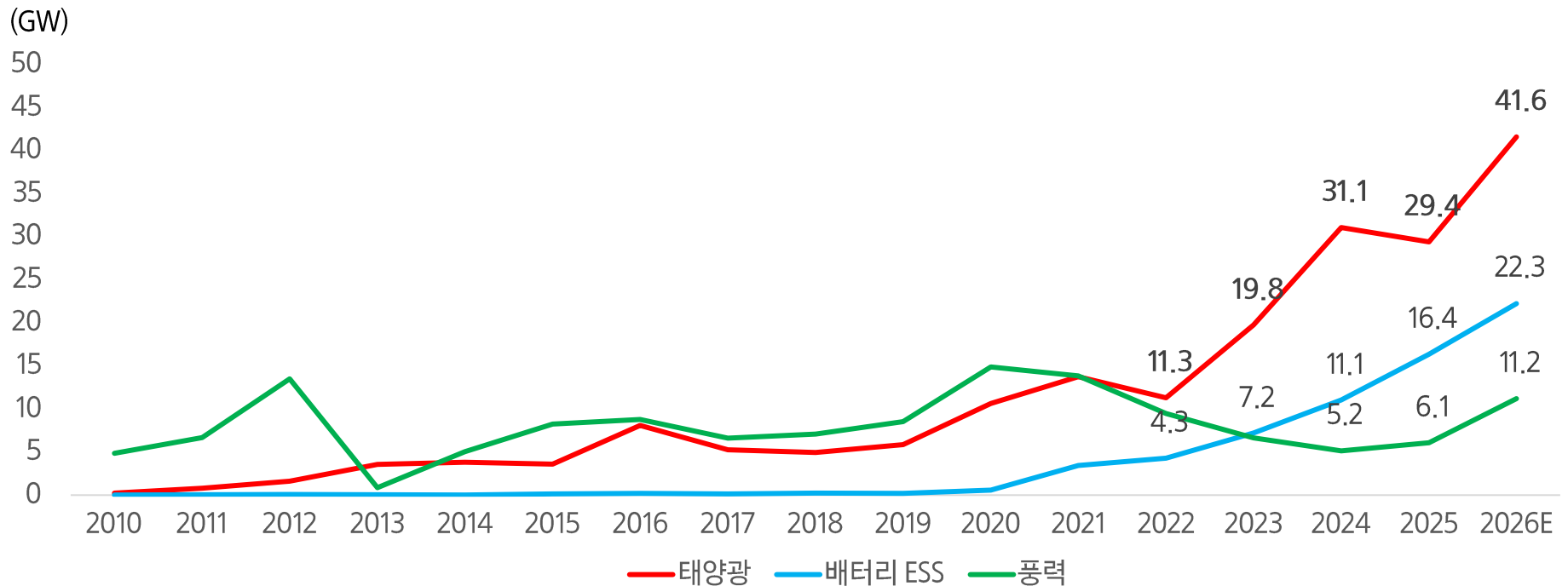


자료: US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26.06) / Note: 정격용량 1MW 이상 발전기 기준 / 상기 데이터는 서베이 기반으로 실제 설치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음

미국 태양광, 풍력, ESS 수요 역시 견고할 전망

- '25년 7월 IRA 수정안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일부 후퇴하였음에도 미국 태양광, 풍력, ESS 수요는 견조한 것으로 판단
- 오히려 IRA 수정안 통과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가파르게 회복될 전망

미국 연도별 태양광, 풍력, ESS 신규 설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 US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26.06)

* Note: 정격용량 1MW 이상 발전기 기준

※ 상기 데이터는 서베이 기반으로 실제 설치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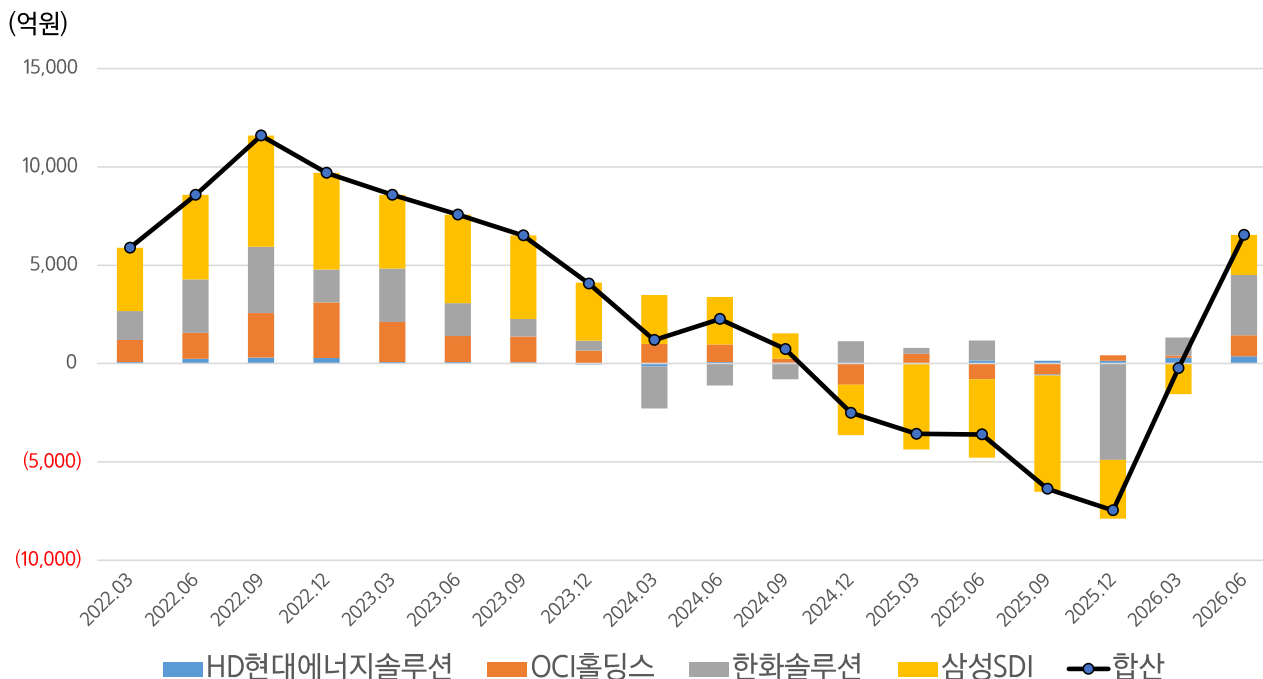
* Note :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 대부분 리튬이온 2차전지가 활용됨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음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2022년 이후 실적 하락 사이클은 마무리 단계라 판단

- 국내 태양광,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은 2022년 이후 하락 사이클 진입
- 전기차 캐즘이 심화되고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공급 과잉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
- 하지만 2026년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및 ESS 시장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미국 전력설비 시장 전반에서 중국산 퇴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있다고 판단

한국 재생에너지 관련주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각 회사 사업보고서, 삼성액티브자산운용 (2026.07)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음. ※ 언급된 기업들은 산업 설명을 위한 것이며, 매수/매도 의견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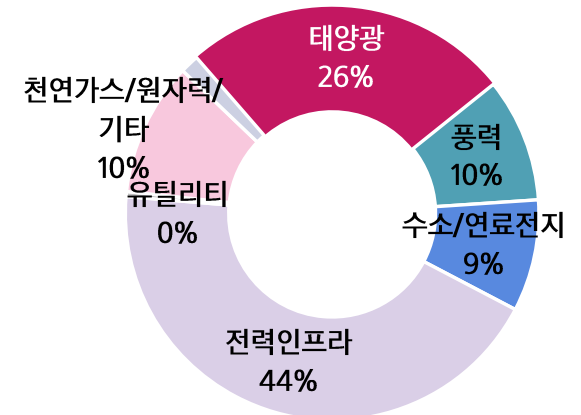
KoAct 글로벌 친환경 전력인프라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 현황

AP 구성 종목(To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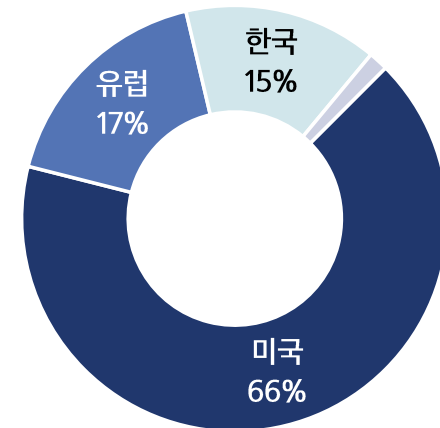
번호	회사명	분류	국가	비중(%)
1	Eaton Corp. Plc	전력인프라	미국	8.3
2	GE Vernova Inc.	전력인프라	미국	7.6
3	Bloom Energy Corporation Class A	수소/연료전지	미국	7.6
4	Quanta Services, Inc.	전력인프라	미국	5.4
5	First Solar, Inc.	태양광	미국	5.1
6	SMA Solar Technology AG	태양광	유럽	4.8
7	Siemens Energy AG	전력인프라	유럽	4.7
8	Nordex SE	풍력	유럽	4.4
9	Vestas Wind Systems A/S	풍력	유럽	3.4
10	Vertiv Holdings Co. Class A	전력인프라	미국	2.5
11	Advanced Energy Industries, Inc.	전력인프라	미국	2.5
12	OCI홀딩스	태양광	한국	2.3
13	HD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한국	2.3
14	TOYO Co., Ltd	태양광	미국	2.2
15	Comfort Systems USA, Inc.	전력인프라	미국	2.2
16	씨에스윈드	풍력	한국	1.9
17	Vicor Corporation	전력인프라	미국	1.9
18	Nextpower Inc. Class A	태양광	미국	1.8
19	효성중공업	전력인프라	한국	1.8
20	Corning Inc	태양광	미국	1.6
21	NXP Semiconductors NV	천연가스/원자력/기타	미국	1.5
22	ON Semiconductor Corporation	천연가스/원자력/기타	미국	1.5
23	Texas Instruments Incorporated	천연가스/원자력/기타	미국	1.5
24	Array Technologies Inc	태양광	미국	1.4
25	Analog Devices, Inc.	천연가스/원자력/기타	미국	1.4

자료: Factset, 삼성액티브자산운용, 2026년 8월 7일(전체 종목 63개) PDF 기준 ※구성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류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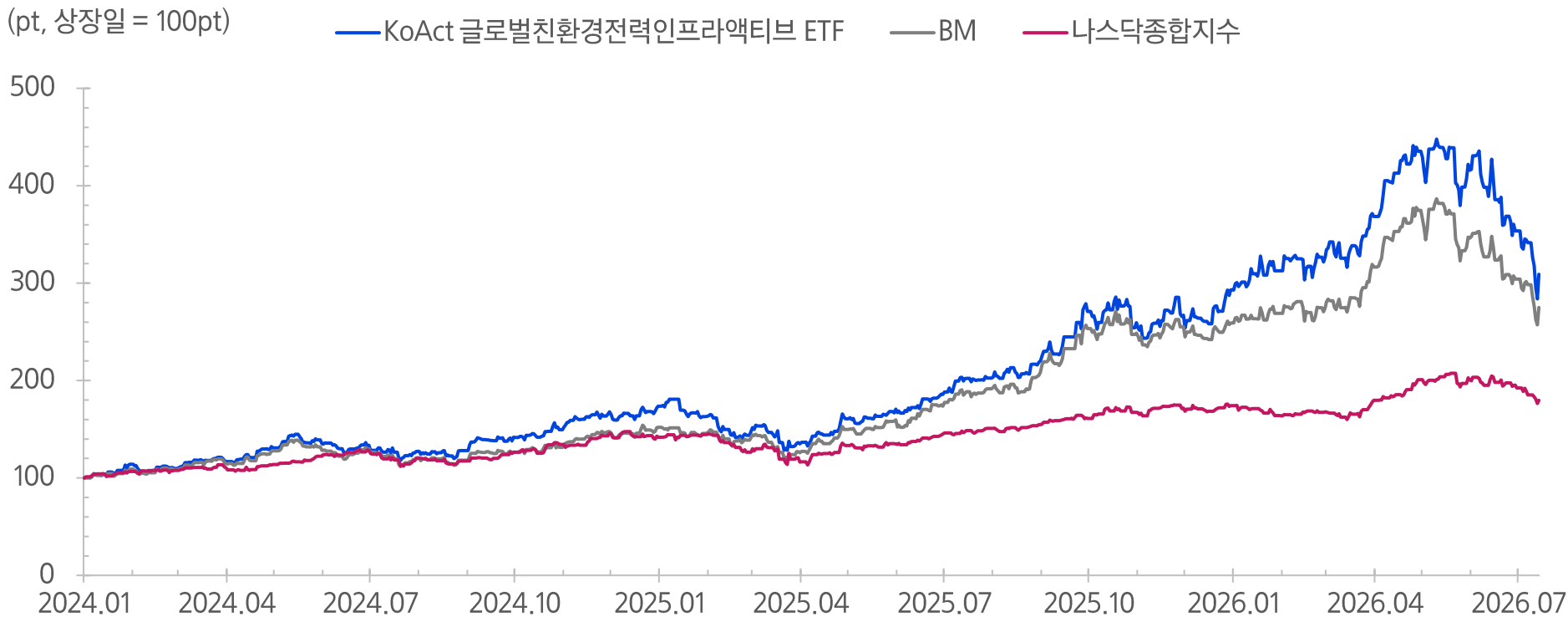
국가별 비중



※ GE Vernova와 Siemens Energy는 풍력/가스터빈, 전력인프라 복합 기업이나 편의상 전력인프라로 분류

KoAct 글로벌친환경전력인프라액티브 ETF 수익률 현황 (상장 이후 나스닥 대비 +129.2%p 초과)

구분	3개월	6개월	1년	상장 이후
KoAct 글로벌친환경전력인프라액티브 ETF	-25.2%	-0.2%	+53.0%	+209.0%
BM	-22.1%	+4.5%	+47.5%	+175.2%
나스닥종합지수	-2.3%	+4.9%	+22.1%	+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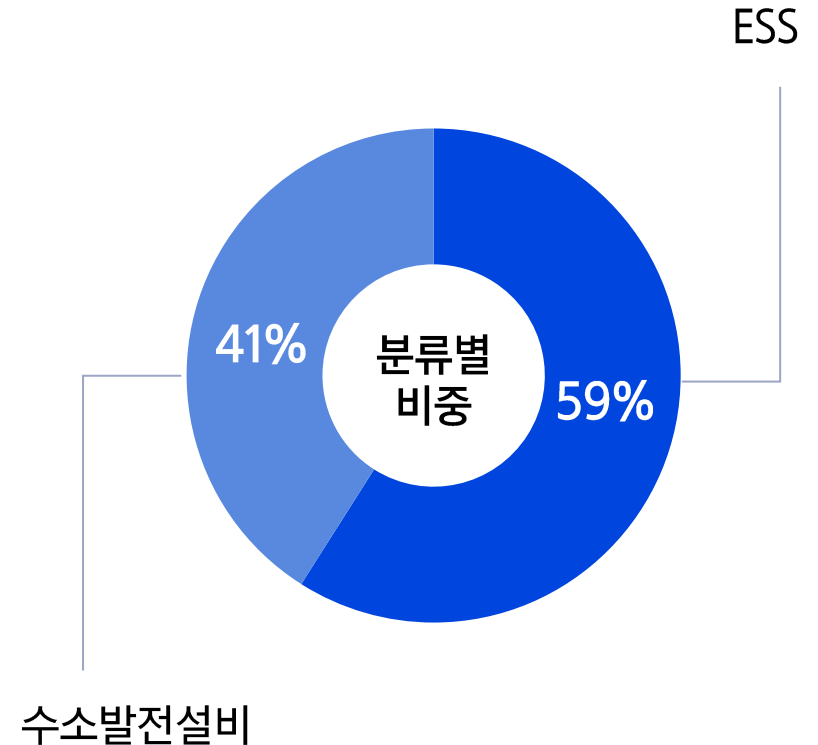


※ 2026.07.31 기준, 순자산 규모: 355억원, 2024.01.16 설정, 2024.01.18 상장,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상기 수익률은 NAV 기준 세전 수익률로,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차트는 상장일 기준가를 100pt로 지수화하여 계산, BM: Solactive 글로벌친환경전력인프라 지수(KRW)

KoAct 수소전력ESS인프라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 현황 (Top 30)

2026년 1월 13일 상장

번호	종목명	분류	비중(%)
1	지엔씨에너지	수소발전설비	9.6
2	SK이터닉스	ESS	7.2
3	삼성SDI	ESS	5.7
4	상신이디피	ESS	5.7
5	LG에너지솔루션	ESS	5.6
6	이랜텍	ESS	5.4
7	LS ELECTRIC	수소발전설비	5.3
8	한중엔시에스	ESS	4.9
9	HD건설기계	수소발전설비	4.9
10	신성에스티	ESS	4.7
11	LS머트리얼즈	수소발전설비	4.5
12	HD현대일렉트릭	ESS	4.4
13	비나텍	수소발전설비	4.1
14	성일하이텍	ESS	4.0
15	비에이치아이	수소발전설비	3.9
16	SNT에너지	수소발전설비	2.8
17	서진시스템	ESS	2.8
18	두산퓨얼셀	수소발전설비	2.6
19	세방전지	ESS	1.2
20	한선엔지니어링	수소발전설비	1.0
21	레이크머티리얼즈	ESS	0.7
22	아모센스	수소발전설비	0.7
23	삼아알미늄	ESS	0.5
24	DI동일	ESS	0.5
25	대명에너지	ESS	0.5
26	신흥에스이씨	ESS	0.5
27	미코	수소발전설비	0.5
28	코세스	수소발전설비	0.5
29	엘앤에프	ESS	0.4
30	상아프론테크	수소발전설비	0.4



※ 상기 포트폴리오는 2026년 8월 7일(전체 종목 49개) PDF 기준입니다.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금융상품의 구성종목 및 비중은 향후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TF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 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성 KoAct ETF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대표전화 : 02-3774-7775 [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